

# 《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古代婦女子의 남편에 대한 審美意識\*

- 家庭篇을 중심으로 -

柳 明 熙\*\*

<目 次>

I. 문제의 제기	3. 思婦의 審美意識
II. 본 론	4. 怨婦의 審美意識
1. 賢婦의 審美意識	5. 棄婦의 審美意識
2. 征婦의 審美意識	III. 結 語

## I. 문제의 제기

필자는 《詩經》속의 「情歌」에 대하여, 이미 戀愛篇과 婚姻篇을 다룬 바가 있다.<sup>1)</sup> 위의 논제는 필자가 계획한 논문의 최종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副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家庭篇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애정」이란, 우리 인생전반을 복잡다단하게 만들어내는 審美動力의 원천이 된다. 특히 사람에게 대한 애정, 더욱이 부부지간의 애정이라면, 서로를 바라보는 심미정감이나 욕구, 기대 내지는 심미태도 등이 특별한 면모를 띄우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夫婦」의 존재양식이란, 서로의 인생에 가장 깊이 관여함으로써 인생의 희비애환을 공동의 몫으로 하는 것을 본질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前者는 『中國學』第21輯(大韓中國學會, 2003. 12,20)에서 後者는 『中國語文學』 제45輯(嶺南中國語文學會, 2005,6)에 게재되어 있음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시경》의 情歌관련자료를 살펴 보면서 이 상호 의존적인 부부양식이 주로 여성인 부녀자 측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측에서 아내를 향한 심미관련 자료는 몇수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여서, 본고에서는 아예 논제를 부녀자 측으로 맞추어놓고 부녀자의 남편에 대한 각종 審美傾向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情歌」속에 나타난 「家庭詩篇」속의 부녀자의 유형을 題材에 의거하여, 賢婦型·征婦型·思婦型·怨婦型·棄婦型 등 5개 類型으로 나누어서, 詩的 話者인 婦女子를 중심으로 이들의 심미활동을 추적하여, 이 시대 부녀자들의 심미관으로부터 표출되는 심미의식의 면면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심미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심미의식은 무엇이며, 이러한 개인성과 공통성을 띤 심미의식이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戀愛篇과 婚姻篇에서 적용했던 독일 게슈탈트(Gestalt)학파의 「完形審美理論」을 본고에서도 활용하고자 한다. 본 학파는 “完形”<sup>2)</sup>의 심리학이론을 활용하여, 審美 중에 있는 主·客體의 심리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심미관계<sup>3)</sup>에 처해 있는 主·客體

2) 「完形」은 바로 「게슈탈트Gestalt」라는 本意임. 사람들이 사물을 관찰할 때, 바로 그 사물에서 자기와 같은 하나의 “힘력”의 작용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생명, 사물의 활력과 운동의 작용 등도 보게 되고 따라서 동시에 일종의 “힘의 도식力的圖式”도 보게 된다는 것임. 고로 사람들의 視知覺이 感受하는 외계사물은 형상, 색채, 공간 등의 감각元素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整體” 즉 「完形」이기도 하다는 것임. 이러한 종류의 “整體” 즉 「完形」은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지하여 얻어내는 것이므로, 결코 聯想이나 상상이나 추리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아닌, 주체의 知覺이 건립해낸 결과이이기 때문에, 객체자체가 「整體」이거나 「完形」인 것은 아니라는 것임. 재언하면, 「完形」이란, 審美 중의 주체와 객체의 심리가 同構의 상태에 있을 때 심미지각은 각개의 개별적인 요소의 總和가 아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整體로서의 知覺完形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李戎《美學概論》(중국: 齊魯書社出版, 1999년 p.331))

3) 우선 「審美」의 용어를 언급하면, 이는 한마디로 「美」에 대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審美主體가 審美對象에 대하여 자유롭게 觀照하는 일종의 정신성 활동으로서, 審美主·客體 간의 기쁨이 증만하는 이

의 心理는 「同形同構」혹은 「異質同構」의 知覺完形 을 이루고 있으며,<sup>4)</sup> 이 때의 주체의 審美知覺은 심미객체의 「表現性」<sup>5)</sup>에 부합되는 內心世界를 창조함으로, 主·客體 상호간에는 자연히 「心物感應」이 일어나서, 심미지각은 「完整性」과 「創造性」을 갖춘 「美的形象」을 창조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바로 대상 詩歌 속에서의 審美主體의 심미활동을 추적하여 主·客體의 심미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 시대<sup>6)</sup> 부녀자

른바 「心物感應、物我交流」의 動態的 심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고로 「審美關係」란, 審美活動 중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임.(위의 책 p.311)

- 4) 「同形同構」란, 게슈탈트 심리학파가 제시한 것으로서, 그들은 外在世界(物理世界)와 사람의 內在世界는 본질상에서 모두 한 종류의 “ 힘力 ” 이 작용한 결과임으로 외재세계와 사람의 내재세계는 형식상에서 일종의 “同形同構” 혹은 “異質同構”의 대응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왜냐하면 외재사물의 형식구조와 사람의 생리·심리구조는 대뇌 중에서 서로 동일한 電脈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외재대상과 주체의 내재정감이 서로 박자가 맞아서 이들은 상호 일치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위의 책 p.331)
- 5) 게슈탈트 심리학파는 “力的圖式”이론을 운용하여 審美對象과 審美知覺의 표현성문제를 제기하였음. 그들은 외재사물과 사람의 정감세계는 동일한 “力的構造”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재사물 역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表現性”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함 즉 본 학파의 주요학자인 阿恩海姆은 “한 그루의 늘어진 수양버들이 비애적인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비애를 띤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진 버드나무 가지의 형상,방향,유연성 등 자체가 일종의 아래로 내려진 피동적인 표현성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藝術與視知覺》(중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년, p.624)라고 하여, 이때의 버드나무가지의 형상이나 그 유연성과 방향성 등이 보여주는 피동적인 표현성은 바로 인간에게 내재한 비애의 정감구조와 相通함으로 인하여, 兩者는 형식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는 「同形同構」로 대응하는 것이 되나; 심미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異質同構」의 대응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음.
- 6) 《시경》의 구체적 창작시기는 대부분 고증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경》의 창작시기는 3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 즉 1단계 시기는 周武王~周康王까지 약 50년 내지 60년간 이는 소위 周公의 「制禮作樂」의 시기임 周頌 중의 部分篇章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함; 2단계 시기는 周昭王~西周晚期: 「雅·頌」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됨; 3단계 시기는 東·西周 교체기~春秋中葉: 國風의 時期로 보고 있음. 본고에서는 小雅篇의 2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國風시기의 자료들임. 고로 본고에서 거론한 시기는 바로 제 3단계의 시기로 보고 있음.(冷成金 《中國文學的歷史與審美》(중국: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p.1-2)

들의 심미경향을 파악하여, 당시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존재가치 및 한계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詩經》의 情歌 중, 家庭篇에서 거론한 詩篇은 모두 18편이다. 목차에 열거한 유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시대 부녀자들은 주로 남편을 邊方이 아니면 賦役場으로 내 보낸 뒤, 부녀자 단독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하는 難局의 時期(東·西周 교체기~春秋中葉)<sup>7)</sup>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바로 「가정편」에서 보여지는 詩歌들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産物임을 여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難局의 情勢 속에서 살아온 부녀자들의 생활경험과 사상감정이 조성하는 審美心境이야말로 대체적으로 우려와 비애의 정감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荀子는 그의 《荀子·正名篇》에서 개개인의 心境이 審美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작용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마음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입으로 맛나는 초식동물의 육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맛을 알아내지 못하며, 귀에 鐘鼓의 풍악소리를 듣고 있다 해도, 그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눈으로 화려한 복식을 보고 있다고 하여도, 역시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며, 가볍고 따스한 의복을 입고, 편안한 자리 위에 누워있다고 하여도 그것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고로 만물의 좋은 점을 누리고 있어도, 마음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으니, 설령 잠시 즐겁다고 느낀다고 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배제해낼 수 없다.”<sup>8)</sup>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이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審美心境의 氣象圖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개인의 心境을 좌우하는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는 당연히 크게는 시대적

7) 주석 6)을 참고할 것.

8) “心憂恐, 則口銜芻糝而不知其味, 耳聽鐘鼓而不知其聲, 目視黼黻而不知其狀, 輕暖平簞而不知其安, 故嚮萬物之美而不能謙也, 假而得回而謙之, 則不能離也.”(蔣南華의 2인 注譯 《荀子全譯》(중국: 貴州人民出版社, 1995년))

산물이요, 작계는 개인 생활환경의 산물이다. 본 논제의 접근을 위해 잠시 東·西周 교체기에서 春秋中葉에 이르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에는 이미 자연재해와 西周政府의 정치적 격동이 야기하는 총체적인 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西周政府는 宣王 말년에서 幽王에 이르는 시기(기원전 800년~770년)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旱災와 극렬한 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당시의 莊園은 모두 荒原으로 변하면서, 空前의 기근으로 인민은 도탄에 빠지고 西周의 정권은 근본적으로 와해되기에 이른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西周政府는 서북의 犬戎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幽王11년(기원전 771년)에는 犬戎이 대거 東犯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원래 정복되었던 夏族의 申人과 緡人 역시 반란을 일으키면서, 幽王은 驪山에서 피살되고, 西周의 정부는 이로 인해, 전복이 되자, 오늘 날의 陝西全境이 마침내 戎人の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幽王의 아들 平王이 이에 압박을 받아 수도를 雒邑(지금의 河南洛陽)으로 東遷하기에 이르게 되었다.<sup>9)</sup>

이때, 西周가 東周로 교체되는 운명을 직면하면서, 종주국이었던 周는 오히려 제후국의 附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였고, 따라서 이제는 천하가 약육강식의 현장을 드러내는 春秋時代로 돌입하게 되자, 인민들의 의식에는 이제 더 이상은 天子로 상징되었던 종주국의 天子가 없었으며, 따라서 天上의 上帝를 향했던 그들의 「天道觀」도 퇴색되어 점차적으로, 人本을 위주화하는 「人道觀」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후의 권력의 확대에 따라서 각개의 封地에서도 오히려 그들 자신의 封地에서 독립된 地方神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封地의 제후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타 封地의 神靈을 배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天上의 諸神도 地上의 諸侯들처럼 봉건적인 할거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자 춘추시대에 와서는 천도관념의 동요에 따라 天道를 대신하여 「禮」와 「刑」이 통치도구가 되면서, 당시 봉건영주의 농

9) 翦伯贊 《先秦史》(중국어: 北京大出版社) p.255 참조 이후는 翦伯贊으로 略記함

민에 대한 통치가 이미 종교의 속임수로부터 정치적인 압박으로 전환되자, 頌主는, “덕으로써 말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며 道之以德, 齊之以禮”; 庶民에 대하여는, “정치로써 말하고, 형으로써 가지런히 하는 道之以政, 齊之以刑.”<sup>10)</sup> 인본주의 통치방식이 시행되었다. 고로 禮란, 실제로는 「德」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刑이란, 「政」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制裁함으로써, 천하의 평정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春秋》에는 “非禮也”의 기재가 충만하고, 동시에 “나라를 흠친 도적”과 “띠고리를 흠친 도적”이 여전히 연달아서 배출되는 난국으로 이어졌다. 이는 이제 더 이상은 진부한 장원제도의 教條가 새로운 사회를 영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로 「刑」으로도 이를 정리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1)</sup>

<國風>의 詩篇 역시 대저 西周末年에서 春秋中葉에 이르는 시기의 작품임으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이 통제력을 잃고, 諸侯들이 자기 영토에 의거하여 왕 노릇을 하는 시대이며, 사회 역시 다원화의 발전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던 「天」이 이미 완전하게 그 세력을 잃어서 인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가 개인의 애정, 혼인의 행복, 생명의 가치 등에 있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가의 여부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각적으로 애정과 혼인에 대하여, 자립성을 강조하여 전통규범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하면, 생명가치에 대한 중시를 내세워 그들 자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춘추시대의 왕성한 인문사상의 선도가 되는 것이며, 더욱이 先秦諸子思想과 《시경》간의 일종의 전통계승관계가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변혁이 당시 부녀자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을까? 본론에서 부녀자들의 남편에 대한 審美關係의 意識을 통해, 이의 면면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10) 朱熹, 《四書章句集注·論語集注·爲政》(대만: 學海出版社, 중화민국 68년)

11) 翦伯贊, pp.337-338.

## II. 본 론

본론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5종의 婦女型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맥박 속에서 삶을 영위했던 부녀자들의 유형으로서, 부녀자들의 의식 속엔 점차적으로 男權에 대한 저항 혹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男權만이 존중되었던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자기의식을 가지고 피동적인 삶에 대한 각종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들의 審美意識의 면면을 표현해 나가는지 살펴보자.

목차에서 드러났다 시피 <國風>시대 부녀자들의 생애는 사회여건상에서 이미 그들의 가정생활 속에 우환의식이라는 因子가 깊숙이 내재해 있었다. 왜냐하면, 부부관, 가정의 핵심구성원인데,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 집안의 家長인 남편이 잦은 兵役과 徭役에 차출됨으로써, 원천적으로 別居의 생활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男權 위주의 사회구조로 인해 부부관계는 「主從關係」로 고착되어서 남편의 방종과 失道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목인이 몰고 오는 가정의 不和 역시 당시 부녀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사회여건하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당시 부녀자들의 人生歷程을 심분 염두에 두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 1. 賢婦의 審美意識

《詩經》의 情歌 중에 가정편에 속한 詩歌에서, 부녀자의 유형을 5종으로 분류하였다. 특기할 것은 이 5개의 유형에서 유일하게 「賢婦」의 유형만이 夫婦가 別離狀態에 있지 않고, 기타 4종 유형은 모두 별리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대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현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귀



3장

“虫飛薨薨， “날벌레가 웅웅 날아다니니，  
甘與子同夢”。 저 역시도 당신과 단꿈을 더 즐기고 싶지만요.”  
“會且歸矣， “등청한 사람들이 이미 곧 돌아올 시각이라고요，  
無庶予子憎”。 제발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아야죠.”

시의 문맥으로 보아서, 1,2장의 起首 2구는 아내가 새벽 잠자리에서 남편의 起床을 재촉하면서 주고받는 대화이다. 아내는 “새벽닭이 이미 울었다 鷄既鳴矣”는 것과 “동녘이 이미 밝았다 東方明矣”는 두 가지 사실을 입에 올려 남편으로 하여금 登廳準備를 서두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은 단지 남편의 태만심에 자극을 주기위한 口實일뿐이다. 3장의 起首 2구로 내려와서 던지는 말(“방안에 벌레가 웅웅 날아다니니, 저 역시도 당신과 더 자고싶답니다 虫飛薨薨, 甘與子同夢”)이 비로소 事實語이다.

우리는 위의 아내의 語調를 통해, 그녀는 이미 아침마다 남편이 登廳時刻에 늦지 않도록 얼마나 苦心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1,2장의 起首 2구(鷄既鳴矣, 朝既盈矣; 東方明矣, 朝既昌矣.)에서 완료형의 虛詞인 “既~矣”와 “矣”를 매구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의 가슴조리는 심미정서를 십분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남편에게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느긋하다. 즉 “匪鷄則鳴, 蒼蠅之聲; 匪東方則明, 月出之光”이라고 하여, 전혀 起床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내는 그래도 이에 원망으로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드러운 語調로 “날벌레가 웅웅대는 소리에, 저도 당신이랑 다시 더 단꿈을 즐기고 싶지만요 虫飛薨薨, 甘與子同夢”(3장의 起首2구)라는 情感語를 던져서, 남편의 기분을 배려해주고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녀의 心中에 담고 있던 한마디인 “등청한 사람들이 이미 돌아올 시각이라고요, 제발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말아야지요 會且歸矣, 無庶予子憎”라는 內心의 우려를 표현하여, 그녀의 남편을 향한 審美念願의 所在를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

서는 안 된다는 內心이 바로 위의 구체적인 행동들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남편의 社會美에 대한 실현을 그녀의 심미가치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계속하여, 이어지는 <鄭風>의 <風雨>를 보자, 여기서는 시적 화자인 아내가 別離中에 있는 남편을 상봉한 이후, 이의 감회를 읊고 있는 것이다. 먼저 原詩를 보면:

제1장

風雨淒淒,	밤새도록 비바람 몰아쳐서 으스스하더니만,
鷄鳴喈喈.	장닭이 꿩을 치는 소리가 꼬끼요오 -.
既見君子,	이제는 苦待하던 그이가 돌아오고 보니,
云胡不夷!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제2장

風雨瀟瀟,	밤새도록 썩-썩 비바람 몰아치건만,
鷄鳴膠膠.	장닭이 꿩을 치는 소리가 꼬끼요오 -.
既見君子,	이제는 苦待하던 그이가 돌아오고 보니,
云胡不瘳?	어찌 心病이 낫지 않을 수 있으리오?

제3장

風雨如晦,	밤새도록 비바람 몰아쳐서 천지가 온통 그믐밤 같지만,
鷄鳴不已.	장닭의 꿩을 치는 울음 또한 끝도없이 새벽을 알리네.
既見君子,	이제는 苦待하던 그이가 돌아오고 보니,
云胡不喜?	어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리오?

아내는 매장의 起首에서 동일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즉 風雨가 몰아치는 微明에 들려오는 닭울음소리(風雨淒淒, 鷄鳴喈喈; 風雨瀟瀟, 鷄鳴膠膠; 風雨如晦, 鷄鳴不已.)에서 “風雨”가 표현하는 앞뒤좌우를 분간하기 어려운 공포의 표현성과 “鷄鳴”이 전달해주는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의 표현성으로부터 곧 출타한 남편의 安危로 노심초사했던 心思와 칠흙같이 어두웠던 미래에 대하여 찬란한 서광을 고대했던 罔聞 등이 이에 감응되어 異質同構를 형성하면서, 瑞光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내는 매장의 3,4구에서 風雨가 몰아치는 암흑의 세상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온 남편에 대하여, “既見君子, 云胡不夷?” “既見君子, 云胡不瘳?” “既見君子, 云胡不喜?”라는 심미희열의 극치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바로 남편이 不在時에 그의 安危로 인해 노심초사했던 一萬憂慮를 깨끗이 날려 보내는 內心の 희열이 터져 나온 것으로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審美心境의 一端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내의 이와 같은 심미희열은 바로 남편의 생명의 安危를 家庭의 健在여부와 동일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남편의 歸還이 그녀에게는 그토록 기뻐던 것이다. 매장의 結句마다 반복된 아내의 심미희열 속에는 바로 아내의 家庭을 지키고자 했던 그간의 苦心을 言外에서 感知할 수 있게 함으로써 賢婦의 형상을 창조해내고 있다.

말하자면, 위의 두 편의 시가에서 보여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심미태도는 모두가 형식상에서는 남편과 主從의 관계로 접맥이 되어있으나, 사실상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통해 본인의 심미가치 즉 前者에서는 남편의 사회미의 실현을; 後者에서는 원만하고 행복한 家庭美의 실현을 위해 남편을 적극적으로 內助하는 審美立場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면, 公事의 주체자인 남편을 통해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부녀자의 「社會美」와 「家庭美」를 모두 드러내고 있는 自我意識의 실현이라고 보여 지기도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남편이 不在한 가정을 지키면서 겪게 되는 부녀자의 각종 심미경험 속으로 진입하여, 그들의 남편을 향한 심미의식의 一端들을 통해, 생활 속의 우환들을 어떠한 審美態度로써 대처해나가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出征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征婦」의 詩篇을 보도록 한다.

## 2. 征婦의 심미의식

남편을 出征시킨 군인의 妻를 「征婦」로 칭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모두

3편을 거론하기로 한다. 衛風<sup>15)</sup>의 <伯兮>와 秦風<sup>16)</sup>의 <小戎> 및 <小雅·鹿鳴之什><sup>17)</sup>의 <杕杜>는 모두 詩 속의 화자가 바로 남편을 출정시킨 征婦들이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살아야 했던 征婦들의 心境은 어떠했을까? 작품 속의 話者의 심미활동을 쫓아서 그들의 審美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衛風>의 <伯兮>를 보면 《毛詩序》의 鄭箋에서, 이 <伯兮>시를 衛의 宣公때에, 蔡人, 衛人, 陳人들이 왕을 따라 鄭의 제후를 정벌하러 나갔을 때, 한 남자가 왕의 선봉에 서서 從軍을 하였는데, 그때 그의 부인이 그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8)</sup> 原詩를 보면:

- 15) 衛風이 발생된 지역은 衛가 邶·鄘를 합병하게 된 지역까지를 포괄함. 邶지역은 殷의 북쪽이며, 鄘의 지역은 邶의 지역보다 조금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음. 衛는 또한 鄘의 남쪽의 위치이나 조금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즉 지금의 河北의 남부와 河南의 북부 일대임. 그래서 우리가 <邶風><鄘風><衛風>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역적인 連接性과 실제상황의 묘사에 의거한 때문이다. 고로 비록 三國의 國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상에서는 衛國의 詩篇으로 통칭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본래 殷의 직할지였으나 紂가 망한 뒤 셋으로 분할하여 邶·鄘·衛로 나누었던 것이며, 뒤에 衛의 康叔이 邶·鄘까지 합병하였으므로, 三國의 구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季札이 各國의 風을 비평한 기록이 《左傳》에 나오는데, 그는 이 三國의 구분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모두 衛風이라 부르고 있음. 衛風이 탄생한 시대는 대략 邶風보다는 1,20년 늦고, 鄘風보다는 5,60년 이르다고 보고 있으니, 平王의 東遷前後 100년 이내로 보고 있음. (金啓華 p.122)
- 16) 甘肅省에서 일어나 陝西省 鳥鼠山 근처에 있었던 나라로 伯益이라는 耆가 禹의 治水를 도운 공으로 嬴이라는 姓을 하사받아서 秦의 始祖가 되었다고 함. 뒤에 7세손 非子는 周의 孝王을 섬겨 秦 땅을 采邑으로 받았고, 宣王때에는 犬戎과 싸웠고, 周가 西戎에 몰려 동쪽 洛邑으로 천도할 때는 10세손인 襄公이 東周의 平王을 호송한 일로 인해, 岐山 서쪽의 땅을 하사받으면서 제후에 봉해지자 비로서 제후국이 된 것으로 전해짐. 秦風은 바로 秦襄公에서 시작하여 秦穆公·康公때까지로 보고 있음. 지역은 지금의 甘肅東部와 陝西地域에 해당함. (金啓華 p.265)
- 17) 《小雅》시편은 그것이 반영한 현실을 가지고 볼 때, 대부분 宣王과 幽王시대의 내용임. 절대다수의 시편이 마땅히 이 시기의 작품임. 時期의 하한선은 당연히 幽王이 亡國한 이후이거나 혹은 東周로 교체되었던 시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大雅》와 비교하면, 그 시대가 늦으며 또한 비교적 깊. (金啓華 p.350 참조)

제1장

伯兮 婦兮， 그이는 건장하고 위풍이 당당하시니，  
 邦之桀兮， 나라를 보위할만한 영웅이시라네.  
 伯也執殳， 그이는 기다란 竹製 창 손에 들고，  
 爲王前驅， 국왕을 위하여 선봉에 서셨도다.

제2장

自伯之東， 그이가 東征을 떠나신 이후부터，  
 首如飛蓬， 머리는 산발한 쭉대머리 같네.  
 豈無膏沐， 어찌 머리에 바를 기름이 없겠는가마는，  
 誰適爲容， 누구를 위하여 기꺼이 단장을 하리오.

제3장

其雨其雨， 비가 내리려고 하더니 방금이라도 비가 내릴듯하더니，  
 杲杲出日， 오히려 하늘에서 피약별만 쨍쨍 내려 쬐이네.  
 願言思伯，<sup>19)</sup> 오로지 그이 생각하다가，  
 甘心首疾！ 아파오는 두통이라면 달게 받아야지요.

제4장

焉得諼草， 어디에 가서 忘憂草를 구해 와서，  
 言樹之背， 뒤걸 北堂에다 심어 볼 꺼나？  
 願言思伯， 오로지 그이 생각에만 빠져있으니，  
 使我心癡， 내 마음 아파서 걷디기 어렵다네.

1장의 起首에서 부터, 詩的 話者는 남편의 社會美 즉 “건장하고 위무당 당한 모습 婦兮”이 바로 국가의 棟梁 邦之桀兮이 될 만한 그릇임을 읊조리며 그녀의 남편에 대한 審美觀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의 녀리에 表象化 되어 있는 남편의 참전당시의 늠름했던 모습 (“伯也執殳 爲王前驅”)을 떠올리면서 征婦로서의 자부심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다 1장의 征婦의 心境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2장에서도 응당 남편의 「사회미」

18) 《十三經注疏·毛詩正義·毛亨傳·鄭玄箋》(浙江古籍出版社, 1998년) 云: 衛宣公之時, 蔡人衛人陳人, 從王伐鄭伯也, 爲王前驅久, 故家人思之” 이후 鄭玄箋은 鄭玄으로 略註함.

19) 程俊英: “願言: 念念不忘的樣子. 聞一多 《風詩類抄》注 “願言”爲 “惓然”. 即眷眷的意思.”

에 걸맞는 「征婦」로서의 그 어떤 婦德을 표명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對比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征婦」는 2장 전체에서 남편의 出征 이후 머리손질 할 마음조차 없다(“自伯之東, 首如飛蓬. 豈無膏沐, 誰適爲容.”)는 극단적인 自暴心境을 밝힘으로써, 극심한 「情·理」의 충돌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1장에서 남편의 「사회미」를 긍정했던데 대한 모순이거나 아니면 화자의 남편에 대한 감성적 심미활동이 우세를 점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豈無膏沐, 誰適爲容.”이라는 정감어 속에 오히려 그녀의 심미활동의 발원이 감성이 아닌 理性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는 征婦 개인의 행복에 대한 覺醒의 因子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 出征할 당시에는 國益을 위해 선봉에 선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막상 남편을 멀리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개인의 행복이 國益에 우선한다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생사의 安危를 예측할 수 없는 남편을 생각하니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임을 심미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심미인식이 여기에 미치자 이어지는 3,4장에서는 기다림의 고뇌와 그리움의 고초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장에서 비가 내릴듯하다가 다시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일기의 표현성에서 이제는 귀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그와의 재회가 여의치 않음을 內心 깊이 感知하면서 “其雨”의 지각완형을 획득하여, 그녀의 인식을 한단계 더 깊이 표명하고 있다. 즉 歸還을 苦待하다가 두통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달게 받겠다는 남편과의 상봉을 염원하는 적극적인 심미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다시 「其雨의 圖式」에 대한 재삼의 感知를 통해, 귀환시기의 불발로 인한 傷心을 잊기 위하여, “망우초護草”를 구해와서 北堂에 심어야겠다는 끝없는 심미의지를 피력하다가 그녀의 審美注意는 중단된 현실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傷心은 “망우초護草”로도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征婦는 국왕을 위한 남편의 出征을 사회미의 실현으로 인식하여 자부심을 가지다가 막상 出征이후 남편의 安危와 연결된 자신의 행복

구축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결국은 개인행복, 즉 부부지간의 애정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행복관을 그의 심미가치로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秦風>의 <小戎>은 秦襄公 十二年(기원전 766년)에 襄公이 西戎를 정벌할 때에 어느 부녀자가 남편이 出征時에 壯觀을 이루었던 戰車·戰馬·兵器 등의 위용과 남편에 대한 정감을 읊고 있다.<sup>20)</sup> 原詩를 보면:

제1장

小戎淺收, 兵車의 앞뒤 턱 나직한데,  
 五檠梁輶,<sup>21)</sup> 가죽 끈으로 다섯 군대를 칭칭 감은 끌채,  
 游環脅驅, 말등에서 요동하는 가죽고리와 驂馬 진입을 막는 革帶,  
 陰鞞塗續,<sup>22)</sup> 兵車의 革帶가 은고리에 바짝 걸려있네.  
 文齒暢轂, 호피방석에 커다란 수레바퀴,

20) 朱熹 《詩集傳》(대만: 中華書局, 1982년): “西戎者, 秦之臣子, 所與不共戴天之仇也. 襄公上乘天子之命, 率其國人往而征之, 故其從役者之家人, 先夸車甲之盛如此, 而後及其私情. 蓋以義與師, 則雖婦人, 亦知勇于赴敵, 而無所怨矣” 이후 朱熹로 略記함.

21) 屈萬里 《詩經詮釋》(대만: 聯經出版社, 民國70년): “小戎, 兵車也. 先啓行之車, 謂之元戎(即大戎), 射師所乘也; 從後行者, 謂之小戎, 群臣所乘也. 淺, 音踐, 淺也. 收, 軫也. 車後橫木謂之軫, 車四面木亦謂之軫. 正義云: ‘兵車當輿之內, 從前軫至後軫, 唯深四尺四寸.’ 又云: ‘大車之用內, 前軫至後軫, 其深八尺. 兵車之軫, 比之爲淺, 故謂之淺軫也.’ 檠, 音木. 歷錄(胡承珙云: 「圍繞纏束之名」)也. 輶以革爲束, 束凡五處. 王夫之詩經稗疏云: 「於束之上, 更以絲交繫, 如紡車之左右交繫, 務爲纏固, 此輶謂歷錄.」 輶, 音舟, 車輶也. 大車謂之輶, 兵車·田車·乘車謂之輶. 輶前上曲如橋梁, 故曰梁輶(見附圖九)” 이후 屈萬里로 略記함.

22) 屈萬里: “釋名: 「游環, 在服馬背上, 驂馬之外轡貫之, 游移前却無定處也. 環, 以皮爲之.”  
 朱熹: “脅驅, 亦以皮爲之, 前係於衡之兩端, 後係於軫之兩端, 當服馬脅之外, 所以驅驂馬使不得內入也.”

孔穎達 《十三經注疏·毛詩正義·毛亨傳》: “陰, 揜輶也.” 즉 수레앞턱의 나무를 막는 판. 이후 <毛亨傳>은 毛亨으로 略記함.

屈萬里: “鞞, 音引, 馬引車所用之皮條. 今俗謂之套. 後端繫於車軸, 出於陰輶之下, 前端繫於衡(胡承珙說), 驂馬用之. 陰鞞者, 陰下之鞞也. 塗, 音玉. 毛傳: 「玉, 白金也. 續, 續鞞也.」 鞞長非一條所能爲, 必接續之, 接處用環. 塗續

駕我騏驎.<sup>23)</sup> 전차를 끌고 가는 철총이 외족백이 얼마나 날쌌던지.  
 言念君子, 그리움에 잠기니 생각나네요,  
 溫其如玉.<sup>24)</sup> 옥인양 부드러운 온화하신 그이가.  
 在其板屋, 西戎의 木板가옥에서 머물고 계시리니,  
 亂我心曲.<sup>25)</sup> 그이 생각에 내 마음 깊은 곳이 헝클어집니다.

제2장

四牡孔阜, 네 필의 숫말들 몸집도 크고 건장한데,  
 六轡在手. 한 손으로 여섯 가닥 고삐를 모두 잡고 조절 하네.  
 騏驎是中, 얼룩말 월다말은 안에서 끌고,  
 騶驎是驂.<sup>26)</sup> 공골말 가라말은 밖에서 끄네.  
 龍盾之合, 용무늬 방패를 마주보게 세우고,  
 鍔以鞶納.<sup>27)</sup> 은고리에는 안고삐를 매었네.  
 言念君子, 머릿속에 떠오르네,  
 溫其在邑. 오랑캐 땅에서 고생하실 온화하신 그이가.  
 方何爲期? 어느 때나 돌아오실꼬?  
 胡然我念之. 어찌하여 이렇게도 그리움에 젖게 하느냐.

제3장

賤駟孔群, 네필 말은 철갑도 가벼운듯 步調가 자유자재하고,  
 玃矛塗錡.<sup>28)</sup> 세모창 고달은 白金으로 장식했도다.  
 蒙伐有苑, 방패에 그려진 雜羽의 문채가 아름답고,  
 虎韞鏃膺.<sup>29)</sup> 호피활집 正面은 靑銅장식이 빛나도다.

23) 程俊英: “文茵: 用花紋的虎皮製的車褥子. 暢轂: 暢, 長. 轂, 車軸伸在兩輪之外的部分.”  
 “騏, 青黑色相雜有花紋的馬. 驎: 白脚的馬後左足白色之馬”  
 24) 鄭玄: “言, 我也”  
 25) 程俊英: “板屋: 西戎敏速用木板蓋房屋. 此處以它代指西戎. 其地在今甘肅一帶. 《漢書·地理志》: “天水郡隴西, 山多林木, 民以板爲室屋. 故秦詩曰 ‘在其板屋.’” 左思《三都賦序》: “見在其板屋, 則知秦野西戎之宅”  
 26) 屈萬里: “駟, 音留; 馬赤身黑鬣曰駟. 中, 謂兩服也. 騶, 音瓜, 黃馬黑喙者. 驎, 馬之黑色者.”  
 27) 屈萬里: “合, 言合載二盾也. 鞶, 音決, 環之有舌者. 納, 音納, 騶內轡也. 鍔以鞶納, 謂用白金以爲繫納之鞶也.”  
 28) 屈萬里: “賤, 無甲也, 賤駟, 謂駟馬皆不被甲也; 馬瑞辰說. 玃, 音求; 玃矛, 三隅矛也. 錡, 音敦, 矛之下端也. 塗錡, 白金之錡也.”

交韞二弓, 활은 엇갈리게 활집 속에 넣어놓고,  
 竹閉緝膝.<sup>30)</sup> 대나무 도지개는 끈으로 바짝 땀내.  
 言念君子, 그대 모습 떠오르네,  
 載寢載興. 자나 깨나 언제든지.  
 厭厭良人, 침착하신 태도의 그이,  
 秩秩德音. 메사에 질도가 있는 품덕이시여.

위의 시가는 征婦가 남편이 출정당시 秦軍의 威武의 威容에 압도되었던 審美經驗을 뇌리에 재소환하면서 異質同構의 지각정체를 再三 感知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즉 제1장의 起首 6구에서 兵車로부터 兵馬에 이르는 하나하나의 감성형식 즉, 兵車의 앞뒤로 나지막한 턱과 가죽 끈으로 다섯 군대를 동여 맨 끌채, 말잔등의 游環, 驂·服사이의 脅驅, 은고리에 걸려있는 兵車의 革帶, 널찍하게 깔려있는 호피방석과 커다란 수레바퀴통, 이러한 兵車를 쏘살같이 끌고 나가는 얼룩말과 외족백이 四匹兵馬의 모습 등등을 일일이 뇌리에 떠올리고 있다. 字字句句마다 그녀 내심의 義氣心이 이들 威武의 표현성과 異質同構를 형성하면서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結句 4구(言念君子, 溫其如玉. 在其板屋, 亂我心曲.)에서는 「公·私」의 충돌심리가 표현되면서 征婦의 審美心境은 動搖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편의 성품을 “溫其如玉”으로 표현하여 征婦는 살벌한 敵陣에서 남편의 戰地適應이 여의치 않음을 걱정하는 內心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으며, 뒤이어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열악한 적진의 환경에서 거거하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혼란스럽다고 직언하여(“在其板屋, 亂我心曲”) 征婦의 審美心理가 조화를 잃고 있음을 드러내어 「公·私」의 충돌에서, 「개인행복의 추구」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9) 屈萬里: “蒙, 彪雜也. 伐, 中干也; 盾之別名. 畫雜羽之文於伐, 故曰蒙伐. 韞, 音暢, 弓囊也; 虎韞, 用虎皮製成之弓囊也. 鏤, 雕鏤也. 膺, 舊謂當馬胸之大帶. 馬瑞辰云: “鏤膺, 當從范處義. 嚴粲說, 謂鏤飾弓室(即弓囊)之膺. 弓以後爲背, 則以前爲膺, 故弓室之前亦爲膺耳. 詩上言虎韞, 下言交韞二弓, 不應中及馬帶.”

30) 屈萬里: “閉, 古通作秘, 弓檠也; 以竹爲之, 縛於宮裏. 緝, 音緝, 繩也, 膝, 搦槩也.”

2,3장에서도 여전히 시적 구성이 동일하다. 1장처럼 起首 6구에서는 출전당시의 장엄한 威容에 고무된 征婦의 義氣心이 兵馬와 兵車의 감성형식(2장)과 兵器의 감성형식3 장 속에 함축되어 征婦의 「公益善」을 지향하는 社會美가 엿보이나, 여전히 이어지는 結句 4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개인정감을 드러내어 「公私間의 충돌심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남편에 대한 개인생명의 安危에 대한 가치를 한결 중시하고 있다. 즉 2장의 結句(言念君子, 溫其在邑 方何爲期? 胡然我念之)에서 여전히 武士의 기질과는 거리가 있는 남편이 征夫가 되어 멀리 변방의 城邑에서 전투 중에 있다는 현실을 사실로 용납하기 어려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言念君子, 溫其在邑”) 돌아올 기약조차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리움을 단절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反語로 끝을 맺어 征婦로서의 자부심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다. 3장의 結句 4구(言念君子, 載寢載興. 厭厭良人, 秩秩德音.)에는 征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心理는 더욱 깊게 고조되어 이제는 그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밤낮없이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깊어지는 불안감에 정미레하여, 남편에 대한 존중의 審美認識은 더욱 더 깊어짐을 피력하고 있다. 즉 언제나 침착하시고 節度를 잃지 않으시는 훌륭한 品德의 소유자(“厭厭良人, 秩秩德音”)임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征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고자하는 심미욕구가 公益善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小雅>의 <杕杜>에서는 위의 2편의 심미경계와 약간 그질을 달리한다. 여기서는 시적화자인 征婦는 公事로 차출된 征夫의 귀환시기<sup>31)</sup>가 연기되는 데서 야기되는 情·理의 충돌을 남편의 어투로 직언하여, 그녀의 심미의식의 깊이를 보여줌으로써, 征人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개인 행복의 추구하고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社會義에 대한 美感 및 며느리로서의 시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孝」의 美感까지 드러내어 征婦의

31) 주석 33)의 程俊英의 註解 참조

심미의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原詩를 보면:

제1장

有杕之杜,      튼실하게 우뚝 서 있는 팔배나무,  
 有隗其實.<sup>32)</sup>   가지마다 불이 불듯 열려있는 풍성한 팔배 열매.  
 王事靡盬,      나라님 시키시는 일이란 끝날 줄을 모르니,  
 繼嗣我日.<sup>33)</sup>   行役의 기한이 다시 또 연기되는구나.  
 日月陽止,      어느덧 나날이 바뀌어서 시월이 되고나니,  
 女心傷止,      여인의 가슴 슬프기 그지없네,  
 征夫遑止.<sup>34)</sup>   征人이라면 당연히 틈을 낼 때가 되었거늘.

제2장

有杕之杜,      튼실하게 우뚝 서 있는 팔배나무,  
 其葉萋萋.      그 잎새들 무성하기도 하여라.  
 王事靡盬,      나라님 시키시는 일이란 끝 날줄을 모르니,  
 我心傷悲.      나의 마음 상처받아 슬프기 짝이 없네.  
 卉木萋止,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니,  
 女心悲止,      여자의 마음은 슬퍼지네.  
 征夫歸止.      征人이라면 마땅히 돌아올 때가 되었거늘.

제3장

陟彼北山,      저 北쪽으로 우뚝 솟은 山 등성에 올라가서,  
 言采其杞.<sup>35)</sup>   구기자나무 잎새를 채취하노라.

32) 程俊英: “杕, 孤生獨特的樣子. 杜, 杜梨, 棠梨. 薔薇果落葉喬木, 枝有刺, 果實小而酸. 隗, 顏色鮮明或果實渾圓的樣子.”  
 33) 王靜芝: “靡, 無也. 盬, 息也. 言國家之事未完, 無可止息也. 嗣, 續也. 言繼續我出征之日, 而不能止也.”  
 程俊英: “繼嗣, 繼續, 含有延長的意思. 按古代行役, 規定春行秋返, 秋行春返. 詩中所寫的丈夫約在春天參加行役, 到杕杜結實, 已過秋時, 尚未回來, 所以說繼嗣我日”  
 34) 朱熹: “陽, 十月也”  
 王靜芝: “遑, 暇也. 言征夫此時當有暇歸家. 思念之意也.”  
 35) 屈萬里: “杞, 木名. 按: 杞, 即枸杞, 灌木, 高二三尺, 夏日開花, 嫩葉可食, 實入藥, 亦可食”  
 段楚英 《詩經中的情歌》(武漢出版社, 1994年): “言, 發語詞” 이후 段楚英 으로 略記함.

王事靡盬, 나라님 시키시는 일은 끝없이 계속되니,  
 憂我父母. 부모님 봉양이 걱정되누나.  
 檀車嘽嘽, 차어나간 단목수레도 헤어져서 너덜너덜,  
 四牡瘡瘡, 네 필의 숫말도 지칠대로 지쳤구나,  
 征夫不遠.<sup>36)</sup> 戍役나간 그이의 귀환날짜 멀지 않았으리.

## 제4장

匪載匪來, 役車에 타고 돌아오지 않으시니,  
 憂心孔疚.<sup>37)</sup> 이 마음 걱정 되서 괴롭기 짝이 없네.  
 期逝不至, 귀환 시기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而多爲恤. 너무나도 괴롭네.  
 卜筮僭止, 거북점과 시초점 모두 다 쳐봤지만,  
 會言近止, 점괘는 모두가 오실 날자 가깝다니,  
 征夫邇止.<sup>38)</sup> 우리 그이 만날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겠죠.

본 시편도 1,2장 起首에서는 자연물, 즉 “팔배나무( 杖杄)의 붉은 열매”와 “팔배나무의 무성한 잎”이 시적 화자의 審美注意을 야기하고 있다. 주석 33)에 근거하면, 시적 화자인 征婦는 아마도 지난 해 봄에 남편을 征人으로 전송했나 보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審美注意가 팔배나무에 달린 풍성한 열매(“有杖之杄, 有晚其實.”)에 집중된 것을 보면, 이는 분명 節候가 가을로 바뀐 것에 대한 感應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석에서 보듯이 고대의 行役法은 春期에 차출하면, 秋期에 復歸시키고 반대로 秋期에 차출하면 春期에 復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기에 그녀는 남편의 戍役기간이 만기가 되는 가을을 재회의 시기로 생각하여 일찍부터

36) 屈萬里: “車輪以檀木爲之, 故凡車皆可稱檀車. 嘽, 音闌. 毛傳: ‘嘽嘽, 敝貌.’ 按: 嘽嘽, 疑與嘽嘽同義. 車聲也. 瘡, 音管. 瘡瘡, 疲憊貌”

37) 屈萬里: “載, 乘車也. 疚, 病也”

38) 程俊英: “卜筮, 占卜算卦. 僭, 與‘嘉’通, 吉利(從馬瑞辰《通釋》說). 會, 聚會. 言, 助詞, 含有‘且’意. 有人訓會‘合’, 會言, 指卜筮合言, 說亦可通. 邇, 近.”  
 金啓華: “何楷: ‘灼龜曰卜, 揲蓍曰筮’ 즉, 거북의 꺾질을 태워서 점치는 것을 ‘卜’이라 하고; 蓍草 줄기를 헤아려서 掛를 나누어 점치는 것을 ‘筮’라 한다. 말하자면, 거북의 꺾질을 태워서 조짐을 묻고 시초로는 卦를 나눈다.”

가을의 도래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깊어진 晩秋의 형상인 팔배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히 들어와서 (“有杖之杜 有腕其實.”) 그녀의 뇌리에 그려왔던 征人과의 재회의 염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낙망이 이에 感應되어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征婦의 內心 깊은 곳에서는 “王事”의 규률의 무원칙함에 대한 理性心理의 작용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현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나라님 시키시는 일은 끝도 한도 없으니, 戍役의 기한이 다시 또 연기되는구나. 王事靡盬 繼嗣我日.”라는 諦念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2구에서는 다시 명년의 새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어느덧 나달이 바뀌어서 시월이 되고나니, 여인의 가슴 슬프기 그지없네, 征人이라면 당연히 틈을 낼 때가 되었거늘. 日月陽止, 女心傷止, 征夫違止.”이라는 悲感의 심미정감을 드러내어, 「公義」와 「私心」사이에서 고뇌하는 內心을 言外에 번지게 하고 있다.

2장의 起首에서도 1장과 동일한 “팔배나무”가 征婦의 審美注意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성하게 우거져가는 팔배나무앞에서 晩春의 표현성(“其葉萋萋”)을 제시하여 또 한 차례 征婦의 審美心境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그녀는 바로 이 晩春의 표현성으로부터 다시 한 번 征人の 귀환에 대한 審美期待가 不發로 그치고 만다는 失意에 휩싸이자 지난 가을에 경험 했던 아픔이 상기되면서 또 다시 悲感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녀는 여전히 1장과 동일하게 “王事”의 무원칙한 霸道가 개인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사회를 향한 비판의식이 내재한 심미정감을 보이고 있다.(“王事靡盬, 我心傷悲”) 그리고 이어서 結尾의 3구 역시 1장의 結尾와 동일한 심미심리를 반복하여, 征人の 귀환시기가 지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卉木萋止, 女心悲止”)과 동시에 그래도 아직은 귀환의 시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대한 미련(“征夫歸止”)을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征人을 苦待하는 심미기대가 애뜻하게 들어나고 있다.

3장으로 오면, 그녀의 이러한 征人에 대한 審美苦待는 계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즉 起首 2구(“陟彼北山, 言采其杞”)에서 그녀는 “北山”으로 올라가서 “구기자 잎”을 채취<sup>39)</sup>하는 심미실천을 보이고 있다. 구기자 잎이 어릴 때는 먹을 수가 있다. 구기자 잎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절후로 봐서 역시 晩春에 해당 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北山”에 올라와서 “구기자 잎”을 채취하는 심미의도는 2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아직은 晩春이니 征人 이 행여 귀환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山」에 올라가면 그가 歸家하는 모습을 더 빨리 더 먼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미의도의 구체화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征人을 대신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가정의 주체로서 “구기자 잎”을 채취하여 양식의 일부로 충당해야겠다는 의도의 구체화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2구에서 征婦가 독백하는 “나라님 시키시는 일이 끝도 없이 계속되니, 부모님 봉양이 걱정되누나. 王事靡盬, 憂我父母”라는 내용이 바로 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즉 3장에서 征人에 대한 기다림은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로서, 또한 며느리로서 부모에 대한 「孝」의 실천에 何者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심미정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남편이 부재한 탓으로 「孝」의 실천에 異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더욱이 남편의 귀환을 苦待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어지는 2구에서는 征人의 歸還을 想像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즉 “差出나간 단목수레도 헤어져서 너털너털, 네 필의 숫말도 지칠대로 지쳤구나. 檀車嘽嘽 四牡瘡瘡.”라는 征人의 差出수레에 대한 “嘽嘽”과 “瘡瘡”의 感性묘사는 바로 征婦의 상상력을 생동적으로 肉化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생동적인 감성형식은 結尾의 “戍役나간 그의 귀환날짜 멀지 않았으리. 征夫不遠”라는 征婦의 간절한 相思心理를 이끌어내는 因子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征婦의 이러한 상상심리 속의 기다림에 대한 긍정적이던 견해는 4장으로 와서는 審美注意의 현실증단을 회복하면서 理性心理로 반전을 기하여, 哀傷 속으로 빠져든다. 즉 起首 2구를 보면, “役車에 타고 돌아오지

39) 朱熹: “登山采杞, 則春已暮而杞可食矣, 蓋託以望其君子.”

않으시니, 이 마음 걱정 되서 괴롭기 짝이 없네.匪載匪來, 憂心孔疚”라는 현실인식을 보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귀환의 시기가 지나갔음도(“귀환 시기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너무나도 괴롭네.期逝不至, 而多爲恤.”)인정하고 있다.征婦의 현실인식이 이와 같이 뚜렷해지자, 그녀의 뇌리에는 다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이번에는 자신의 상상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卜筮”의 예측에 의존하여 위안 받고 있다. 즉 “卜·筮”에서 모두 귀환 날자가 가까워졌다고 하였으니(“會言近止”) 정말 곧 재회할 수 있을 것(“征夫邇止”)이라는 희망을 다시 가져 보는 심미심리를 보임으로써 個人感性과 보편적 理性的 兩極을 끊임없이 오가면서, 그녀의 삶에 대한 심미추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위의 3편의 시가에 나타난 征婦의 征人에 대한 심미특징은 모두 남편이 출전 당시에는 남편의 公義의 실현에 대하여 자부심을 드러내다가 別離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는 征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觀點이 반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國事를 위한 公義의 실현에 사회적 의의를 자부했던 征婦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로 돌아가서 遠行중의 남편의 安危를 염려하거나 혹은 남편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재확인 및 그리움과 기다림, 시부모님에 대한 효도 등의 가족중심의 심미태도 속에서 개인행복에의 자각을 보이는 「公·私의 충돌」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征婦의 審美觀 속에 「公義」라는 社會善은 하나의 허구이나, 가족을 위한 배려와 노력, 즉 남편과 시부모 등을 향한 恩愛야말로 진정 征婦自身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심미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 3. 思婦의 審美意識

여기서 「思婦」란 용어는 遠行중의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을 지칭하는 용어<sup>40)</sup>로서, 중국문인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접두어로 쓰인 “思”字의 의미 속엔 “그리워하다” “걱정하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으로 본 항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잘 부합되어 여기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대상 시편은 모두 7수에 해당한다. 이들 대상 작품 속에서 우리는 「思婦」의 남편에 대한 각종의 심미정감을 접하게 된다. 이들 심미정감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구별된다. 즉 첫째, 오로지 순수하게 遠行중의 남편에 대한 부부지간의 相思만을 읊은 순수한 感性정감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남편이 「公益」보다는 가족중심에서 同苦同樂해줄 것을 추구하는 家族행복을 위주로 하는 가족애의 정감이 있으며; 셋째는 남편의 면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통해, 思婦의 심미염원을 표현한 理性的 情感 등이 있다. 그럼 이러한 심미정감들 속에 내포된 심미특징은 어떠한 것일까?

그럼 먼저 思婦의 남편에 대한 순수한 부부애적인 相思가 感性的 情感 속에 녹아 있는 詩篇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周南>41)의 <卷耳>와 <召南> 42)의 <草蟲> 및 <秦風>의 <晨風> 등이 있다. 그럼 먼저 <卷耳>의 原詩를 보자.

40) 晉·陸機 <爲顧彥先贈婦>詩之二(南朝·徐陵 編 《玉台新詠》(華夏出版社, 1999년): “東南有思婦, 長歎充幽閨” 清·吳偉業 <圓圓曲>(李春祥 主編 《樂府詩鑑賞辭典》(中州古籍出版社, 1889년): “可憐思婦樓頭柳, 認作天邊粉絮看.”

41) 《周南》지역은 洛陽부근임. 실제상에서 그것은 《王風》의 지역과 서로 같음 그러나 《王風》은 本地의 詩歌이고, 本地의 음악이나, 《周南》은 남방화된 음악이며, 동시에 江漢유역의 詩歌를 채집한 것이다. 作詩의 지역으로 作詩의 시대를 유추해보면, 洛陽은 東周의 都城임. 《周南》의 시편은 대부분 아마도 東周시대에 지어졌을 것임. 周公 묘의 周와는 무관함. 동시에 中原의 음악은 남방의 영향을 받았으며, 춘추시대에 남북이 빈번한 왕래를 할때였을 것으로 추단함. 그래서 詩樂을 연구하는 사람은 <關雎>에 亂辭가 있다고 말한다. 亂辭는 남방음악의 繁尾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周南》이 남방의 영향을 받은 정황으로 보면, 그 作詩時期가 그렇게 이르지는 않을 것임. 대략 西周末에서 東周初의 작품일 것임. 그러나 시 속에서 증명할만한 사실이 없음. (金啓華 p.1)

42) 《召南》의 作詩時期는 대략 西周末에서 東周初에 해당함. 즉 《周南》의 발생시기와 대체로 동일함.(金啓華 앞의 책, p.25) 발생지역은 周南以南에서 長江에 이르는 지역임.(屈萬里 p.21 참조)

1장

采采卷耳, 도꼬마리를 캐고 또 캐어보지만,  
 不盈頃筐. (여전히) 삼태기에 차오르지 않네요.  
 嗟我懷人, 아, 나는 임 생각에 골똥하여,  
 置彼周行. (나도 몰래) 삼태기를 대로연변에 내던졌어요.

2장

陟彼崔嵬, 저 높디높은 土石山을 올라서니,  
 我馬虺隤. 나의 말은 이미 벌써 다리 힘이 풀리네.  
 我姑酌彼金罍, 잠시라도 저 銅盞에 술을 가득 부어서,  
 維以不永懷. 이네 긴긴 그리움을 없애 볼거나.

3장

陟彼高岡, 저 높은 산등성에 올라서니,  
 我馬玄黃. 나의 말은 이미 병이 들어 흑황색을 띄우네.  
 我姑酌彼兕觥, 잠시라도 저 무소뿔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維以不永傷. 기나긴 객지의 아픔을 없애보려 하노라.

4장

陟彼烝矣, 저 돌 산을 올라서니,  
 我馬瘠矣. 나의 말은 지쳐서 쓰러지려하는구나.  
 我僕痡矣, 나의 僕人 역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네,  
 云何吁矣. (이 난관을) 어찌 벗어날 꺼나

原詩에서 나타나듯이, 제1장은 시적 화자인 思婦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정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2장부터 末章까지는 모두 思婦가 遠行 중에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그의 어투를 모방하여, 그의 행로상의 노고와 思鄉心을 幻想함으로써, 思婦의 남편에 대한 애정의 지극함을 언외에 함축시켜주고 있다.

먼저 1장의 起首 2구를 보면, 지금 思婦는 “卷耳”를 캐고 또 캐어보지만, 도무지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采采卷耳, 不盈頃筐”) 이유가 무엇일까? 3,4구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出他하고 집에 없는 남편이 그리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嗟我懷人, 置彼周行.”) 말하자면 지금 그녀의 뇌리에는 온통 남편에 대한 審美幻想으로 꽂

차 있기 때문에, 「일상의식의 垂直中斷」<sup>43)</sup>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현실인식감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思婦의 남편을 향한 「그리움의 구체화」인 “嗟我懷人 置彼周行.”이라는 심미태도의 표현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 末章까지를 보면 그 회답은 더욱 확연히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1장 이하의 숫제 思婦가 객체인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어투로써 그의 遠行중의 노고와 鄉愁病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상황을 우리의 눈앞에 視聽覺化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思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理解의 극치로서 본 시편의 眞價를 제대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思婦」자신의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1장)은 물론이지만, 遠行에 지친 남편에 대한 면면의 환상 즉 「土石山 혹은 높은 산등성이에 오르는 모습 陟彼崔嵬; 陟彼高岡」과 「銅盞 혹은 무소뿔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모습 我姑酌彼金罍; 我姑酌彼兕觥」 및 「말과 노복조차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 我馬瘠矣; 我僕痡矣」 등이 부각시키는 애잔한 시각적 표현성과 이에 수반하여 귓전에 幻聽되는 남편의 목소리 “이네 긴긴 괴로움을 없애 불꺼나; 기나긴 객지의 이픔을 없애 보려하노라; 이 난관을 어찌 벗어날꺼나 維以不永懷; 維以不永傷 云何吁矣” 등의 애절한 청각적 표현성 등을 感知하면서 思婦의 내심깊이 파고드는 相思가 남편의 一切를 완전히 자기와 同一視하게 하는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요컨대 思婦의 남편에 대한 이와 같은 審美理解의 相思는 이른바 「夫婦는 一心同體」라는 인륜의 大同美를 감성형식으로 재현시킨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自我表現의 정면성을 他我表現의 상대성으로 전환시켜 夫婦는 몸은 서로 달리하고 있으나 마음은 하나임을 感性的으로 표현하여, 思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態度에 그 어떤 의도도 침전되어 있지 않는 진실성이 엿보이게 하고 있다.

43) 今道友信 《關於美》(黑龍江人民出版社, 1983년)

<召南>의 <草蟲>에도 思婦의 남편을 향한 애절한 相思의 審美性이 가슴을 저미게 한다. 먼저 原詩를 보면:

제1장

嘒嘒草蟲,	가을이 오니 풀무치가 지-지- 울어대고,
趿趿阜螽.	메뚜기는 여기저기로 탁탁 튀어 오르네.
未見君子,	아직도 입을 相面하지 못하여,
憂心忡忡.	근심으로 안절부절.
亦既見止,	입을 만나게 된다면,
亦既覯止,	서로 함께 모여 산다면,
我心則降. <sup>44)</sup>	내 마음 다시는 불안에 떨지 않을 터인데.

제2장

陟彼南山,	저 남산에 올라가서,
言采其薇.	고사리를 채취하노라.
未見君子,	오랜 동안 입을 상면하지 못하니,
憂心悒悒.	근심에 젖어서 어찌할 바 모르겠네,
亦既見止,	이미 입을 만난 상태라면,
亦既覯止,	우리 이미 사랑을 확인했다면,
我心則說.	내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차오를 터인데.

제3장

陟彼南山,	저 남산에 올라가서,
言采其薇.	고비나물을 뜯노라.
未見君子,	아직 입을 상면하지 못하여,
我心傷悲.	내 마음이 상심에 젖어 슬프도다.
亦既見止,	이미 입을 만난상태라면,
亦既覯止,	이미 벌써 사랑을 확인한 상태라면,
我心則夷.	내 마음 평안하기 그지없을 터인데.

본 시편은 보다시피 1장의 起首 2句(“嘒嘒草蟲 趿趿阜螽”)에서 詩的 話者인 思婦는 “풀무치草蟲”의 우는 소리(嘒嘒)와 “메뚜기阜螽”의 방향감

44) 屈萬里: “亦, 有「若」義: 經詞衍釋有說. 止, 語助詞. 覯, 讀爲溝, 遇也.”

각 없이 이리저리로 뛰어 오르는(趨躍) 모습에서 殺傷의 季節性을 感知함으로써, 行役나간<sup>45)</sup> 남편을 苦待하는 심리로 인해, 불안정서가 이에 감응되면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녀는 이어지는 2구에서 그녀의 內心の 불안정한 心境을 “未見君子, 憂心忡忡”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곧 다시 비에의 心境을 반전시킬 수 있는 “亦既見止, 亦既覯止, 我心則降”라는 對比聯想을 幻想해 보지만 실제상에서는 그의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이 더욱 더 강렬해지는 思婦의 고통이 言外에서 느껴진다.

이어지는 2,3장은 다시 또 만물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시적 화자인 思婦가 나물을 캐러 산에 오르는 日常的 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2장을 보면, 起首 2구(“陟彼南山, 言采其蕨.”)에서 思婦는 “고사리蕨”을 채취하기 위해 “南山”에 올랐다. 산에 올라보니 대지는 또 다시 돌아온 봄으로 인해 생명의 기운을 한껏 뽐내고 있다. 思婦는 이렇게 대지로 돌아온 새봄의 약동적인 표현성을 感知하자 行役 나가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대비되면서 審美心理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하여서, 이어지는 2구에서 자연스럽게 그녀는 “未見君子, 憂心惓惓”이라는 내심의 心境을 정면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結句 3구에서는 1장의 結句와 마찬가지로 對比聯想을 통한 반전(“亦既見止, 亦既覯止, 我心則說”)을 반복시킴으로써, 오히려 남편의 귀환에 대한 심미욕구를 가일층 증대시켜 思婦의 審美心境이 더욱 깊숙이 얽힌 亂麻처럼 복잡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어지는 3장은 2장의 반복에 불과 하다. 이를테면, “言采其蕨”을 “言采其薇”로; “憂心惓惓”을 “我心傷悲”로; “我心則說”을 “我心則夷”로만 교체했을 뿐이다. 보다시피 교체된 對象語가 상호 동일한 종류이거나 心境임으로 완벽하게 반복성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본 시가에서 이러한 반복성은 바로 심미주체인 思婦의 남편

45) 王照圓《詩問》: “兩年事爾。君子行役當春夏間, 涉秋未歸, 故感蟲鳴而思。至來年春夏猶未歸, 故復有後二章。”(段楚英 제인용 p.379)

에 대한 「相思의 구체화」로서, 부부지간은 언제나 함께 할 때만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命題를 부각시켜, 그녀의 남편을 향한 審美정감의 깊이를 인외에 번져 나게 하고 있다.

이어지는 <秦風>의 <晨風>에서도 위의 <草蟲>처럼 여전히 思婦 1 인 이 객체를 향해 심미정감을 펼치고 있다. 原詩를 보면:

제1장

駢晨風, 저 새매 쏜 살같이,  
 鬱彼北林.<sup>46)</sup> 樹林이 우거진 北林 쪽으로 날아오네.  
 未見君子, 아직 입을 상봉하지 못하여,  
 憂心欽欽.<sup>47)</sup> 근심걱정으로 어쩔 줄을 모르겠네.  
 如何如何? 어찌면 좋으랴 어떡하면 좋아?  
 忘我實多! 나를 너무나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제2장

山有苞櫟, 산기슭에는 무성한 굴참나무,  
 隰有六駮.<sup>48)</sup> 저습지대에는 우거진 가래나무.  
 未見君子, 아직도 그이를 만나지 못하여,  
 憂心靡樂. 근심에 젖어서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네.  
 如何如何?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忘我實多. 나를 너무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제3장

山有苞棣, 산에는 무성하게 우거진 산앵도나무,  
 隰有樹檜.<sup>49)</sup> 진펄에는 직립한 돌배나무.

46) 毛亨: “駢 疾飛貌”

滕志賢 《詩經讀本》(대만: 三民書局, 中華民國 90년): “晨風, 猛禽名. 又名, 似鷓, 青黃色, 燕頰鉤喙, 疾擊鳩鶴, 燕雀食之. 晨, 通鷓. 北林, 樹林名” 이후 滕志賢으로 略記함.

47) 朱熹: “欽欽, 憂而不息之貌.”

程俊英: “欽欽, 憂愁而不能忘記的樣子.(從朱熹 《詩集傳》說)”

48) 滕志賢: “苞櫟, 叢生之櫟樹. 櫟, 又名栲, 其實橡子. 六駮, 木名, 葉似豫章, 皮多癩駮(從崔豹 《古今注》)”

程俊英: “苞, 叢生的樣子. 櫟, 樹名. 六, 蓼的借字, 長長的樣子(從聞一多說). 駮, 赤李.”

未見君子,      아직도 입을 만나지 못했으니,  
憂心如醉.      근심에 젖은 마음 술에 취한듯.  
如何如何?      어찌할꼬 어찌할꼬?  
忘我實多!      나를 너무나도 까맣게 잊으셨으니!

본 시편도 매장 起首 1,2구에 시적 화자인 思婦의 審美注意를 야기하는 대상물이 출현하고 있다. 즉 1장에는 “北林”쪽으로 날아드는 “새매晨風”가; 2,3장에는 모두 樹木으로서, 즉 산기슭에는 무성한 굴참나무, 저습지대에는 우거진 가래나무.(“山有苞棣, 隰有六駁.”); 산에는 무성하게 우거진 산앵도나무, 진펄에는 직립으로 우뚝 솟은 돌배나무.(“山有苞棣, 隰有樹榿”) 등이다. 思婦는 이들 심미대상 즉 “새매晨風”를 통해서는 歸巢의 표현성을; “苞棣”과 “六駁” 및 “苞棣”와 “樹榿”를 통해서는 「山地」와 「濕地」의 土性에 따라서 제자리를 지키는 「樹木」의 生理的 秩序의 표현성을 感知하자, 그녀의 뇌리에는 마땅히 함께 살아야할 夫婦가 別離의 상태에 처한 현실이 대비적으로 연상되면서 이들 심미대상과 同一視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審美悲哀가 매장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매장의 結句마다 반복적으로 “如何如何? 忘我實多!”라고 토해내는 이 審美喪失의 情感語는 그녀의 審美心境을 완전히 흔들어 대고 있다.

말하자면, 매장의 結句에서 반복되는 思婦의 이러한 相思의 심미고통을 통해서, 그녀의 審美觀의 중심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뚝한 존재임을 쉬이 간파할 수 있다. 思婦인 그녀에게서의 남편이란, 본질적으로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는 심미관계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空閨의 처지를 감당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지금 그녀의 심미정서는 남편을 향한 심미기대의 절망으로 인해, 공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49) 程俊英: “棣, 亦名唐棣 鬱李, 結果色紅如李. 樹, 直立的样子, 形容榿. 榿, 山梨.”

50) 종법사회에서의 여성은 영원히 홀로서는 독립성을 지닐 수 없다. 이를테면, 「三

두 번째로는 남편이 「公益」보다는 가족중심에서 同苦同樂해줄 것을 추구하는 家族위주의 情感的 심미의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서 거론하는 작품은 <周南>의 <汝墳> 을 예로 들어 본다. 原詩 를 보면

제1장

遵彼汝墳,      저 汝水의 堤防을 따라 가면서,  
伐其條枚.<sup>51)</sup>    나뭇가지 나무줄기 모두 잘랐습니다.  
未見君子,      오랫동안 당신을 보지 못하니,  
惄如調飢.<sup>52)</sup>    아침을 굶은 듯이 기운이 없습니다.

제2장

遵彼汝墳,      저 여수의 독을 따라 내려가면서,  
伐其條肄.<sup>53)</sup>    그루터기의 새순마저 있는 대로 모두 잘랐습니다.  
既見君子,      남편이 돌아왔어요,  
不我遐棄.<sup>54)</sup>    이 몸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從之義」와 「七去之惡」이란 사회적 장치는 여성을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을 사별하면 자식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관련자료를 보면: 《十三經注疏·儀禮·喪服》: “無專用之道 故未嫁從父 既嫁從夫, 夫死從子”의 기재와 “出妻之子爲母”라는 주석에 “七出者: 無子一也, 淫佚二也, 不事舅姑三也, 口舌四也, 盜竊五也, 妬忌六也, 惡疾七也.”라는 기재가 보인다. 漢代의 자료에는 바로 劉向이 撰한 《列女傳·魯之母師傳》(대만: 廣文書局, 民國 61년)의 기재에 「三從之義와 관련한 “婦人有三從之義 而無專制之行, 少系于父母, 長系于夫, 老系于子.”라는 훈계가 보이며, 元代의 孔廣森이 撰한 《大戴禮記補注·本命》(대만: 商務印書館, 民國 54년 초판)에는 「七去之惡, 과 관련한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盜竊去.”라는 내용이 보인다.

- 51) 程俊英: “遵, 沿着. 汝, 汝水, 源出河南省梁縣天息山, 東南至新蔡流入淮河. 墳, 墳的假借字, 隄岸. 《說文》: ‘墳, 水厓也.’ 《毛傳》: ‘墳, 大防也.’” 毛亨 ‘枝曰條, 榦曰枚.’
- 52) 鄭玄: ‘惄, 思也. 未見君子之時, 如朝饑之思食.’ 調飢, 早上饑餓. 調, 同朝. 《魯詩》作朝.
- 53) 聞一多 《詩經新義》(대만: 開明書店全集本): “《傳》曰: ‘斬而復生曰肄’ 案斬而復生之枝, 亦小枝”
- 54) 毛亨: “遐, 遠也.”  
《十三經注疏·毛詩正義》 孔穎達疏: “猶言不遐棄我 古之人語多倒 詩之此類衆矣.”이 두 구는 시인이 상견후의 유쾌함을 상상해 보는 것임. 이후 孔穎達疏

## 제3장

魴魚赭尾, 방어의 꼬리가 붉은 색으로 변해가네요,  
 王室如燬.<sup>55)</sup> 官家의 差出 독촉이 火魔처럼 혹독할 테죠.  
 雖則如燬, 비록 차출의 독촉이 火魔에 시달리듯 괴롭드래도,  
 父母孔邇.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본 시편은 差出나간 남편에게 思婦의 현실 상황을 정면수법으로 독백하고 있는 형식이다. 위의 <卷耳>에서처럼, 본 시가의 思婦 역시 남편을 향한 심미대도가 자못 애절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인 도덕정감을 내포하고 있는 가족우선에 대한 심미의식이 基底에 깔려 있다.

詩의 話者인 思婦는 1,2장의 起首 2구에서 생활 속의 실제상황인 “汝水の堤防(汝墳)”을 따라가면서 땀감 나무를 취하는 敘事的 행위를 통해, 남편의 不在로 인한 思婦의 生活苦와 이로 인한 기다림의 절실함을 投射하고 있다. 再言하면, 1장에서 “나뭇가지와 줄기를 모두 잘라서 땀감으로 하고 있다伐其條枚”는 獨白의 이면에는 남편의 不在가 가져오는 生活苦가 바로 남편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대체되었다는 思婦內心의 심미욕구가 感知된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結句에서 情恨의 극치를 보여주는 “오랜 동안 당신을 보지 못하니, 아침을 굶은 듯이 기운이 없습니다. 未見君子, 惄如調飢.”라는 직언이 서슴없이 튀어 나오고 있다. 思婦의 이러한 情恨의 心境은 2장으로 내려오면, 想像이란 詩的 장치를 가지고 情恨의 心理를 反轉시켜 相面の 희열로써 幻想을 보이고 있다. 즉 起首 2 구에서 “다시 해가 바뀐 뒤 지난 해 잘랐던 그루터기에서 새로 돌아난 크고 작은 나뭇가지마저 또 다시 모두 잘랐다伐其條肄”고 하는 獨白은 바로 그녀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절망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제는

## 略記함.

55) 孔穎達: “魴魚之尾不赤, 故知勞則尾赤’ 用魴魚勞則尾赤, 形容服役者的勞累. 燬, 烈火, 焚也, 形容王政暴虐.”

裴普賢 《詩經評註讀本》上(대만: 三民書局, 民國 77년): “王室: 謂周朝. 燬: 焚. 如燬: 形容戰亂之狀. 崔述謂指驪山亂亡之事”

현실이라는 이 苦海의 질곡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結句에서 상상 속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뻐하며, 자기를 버리지 않고 찾아준 것에 대한 기쁨을 “既見君子, 不我遐棄”라는 정감어로 표출해냄으로써 그녀에게 당면한 질곡의 현실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도 思婦의 상상은 계속되는데, 이는 남편이 귀환이후, 다시 또 官家의 差出 독촉이 극심해져서, 어떠한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피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魴魚鱗尾, 王室如燬 雖則如燬, 父母孔邇”) 이와 같은 思婦의 시부모님을 위한 권면은 며느리로서의 「孝」의 실천에 대한 윤리의식으로서, 이는 思婦의 심미관 속에 公事보다는 家庭事; 公義보다는 私意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인행복에의 중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말하자면, 1,2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을 思婦중심에서 그녀의 심미욕구를 표현한 것이었다면, 3장에서는 남편에게 아들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도」도 일깨워 줌으로써, 思婦의 심미정감 속에 내포된 審美觀의 특징을 엿보게 하고 있다. 즉 그녀는 남편을 향한 아내로서의 여성적인 개인행복의 추구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하는 儒家的 家族觀도 기저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녀의 審美理性이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親·疎」로 구분함으로써, 家族愛를 社會愛에 우선하는 가족중심으로서의 自覺性도 드러내어, 思婦의 당시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일면도 엿보게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남편에 대한 구체적 면면을 통해, 思婦의 심미염원을 표현한 理性的 情感의 표현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거론하는 작품은 <召南>의 <殷其雷>, <邶風>의 <雄雉> 및 <王風><sup>56)</sup>의 <君子于役>이다.

먼저 <召南>의 <殷其雷>를 보기로 한다.

56) 《王風》이 발생한 지역은 지금의 洛陽一帶로서, 周王室이 東遷 이후의 都城의 소재지에 해당함. 주석 36)참고할 것.

## 제1장

殷其雷, 우루루 쿵쿵 천둥치는 소리,  
 在南山之陽.<sup>57)</sup> 남산의 남쪽 기슭에서 들려오네.  
 何斯違斯? 왜 그 이는 이러한 시각에 집을 떠나 계시는가?  
 莫敢或違.<sup>58)</sup> 너무나 충직하시니 감히 틈을 내시지도 못 하시는가.  
 振振君子, 충직하고 성실하신 그대여,  
 歸哉歸哉! 부디 돌아와 주소서 돌아와 줘요.

## 제2장

殷其雷, 우루루 쿵쿵 천둥치는 소리,  
 在南山之側. 남산의 측면에서 울려오네.  
 何斯違斯? 왜 그 이는 하필이면 이러한 시각에 집을 떠나 계시는가?  
 莫敢或違.<sup>59)</sup> 너무나 충직하시니 감히 한숨 돌릴 틈도 내지 못하시는 걸까.  
 振振君子, 충직하시고 성실하신 그대여,  
 歸哉歸哉! 부디 돌아와요 돌아와 주세요.

## 제3장

殷其雷, 우루루 쿵쿵 천둥치는 소리,  
 在南山之下. 남산의 아래 쪽에서 들려오네.  
 何斯違斯?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 고향을 떠나서 계시는가?  
 莫敢或違.<sup>60)</sup> 너무나 충직하시니 감히 틈을 내어 쉬지도 못하시는 걸까.  
 振振君子, 충직하고 성실하신 그대여,  
 歸哉歸哉! 하루 속히 귀가 하소서 귀가하소서.

지금 思婦는 친지를 가르듯한 남산기슭의 천둥소리(“殷其雷, 在南山之陽”)에서 온몸에 임습하는 공포의 표현성을 感知하자, 公事로 出他중에 있는 남편의 安危에 대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이 이에 감응되면서 강렬한 이질동구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녀의 내심은 매장의 2,3구에서, 반복적으로 그동안 남편의 差出行役に 대한 복잡한 심리

57) 程俊英: “殷其 等于疊字殷殷 陽 山的南邊”

58) 嚴粲 《詩緝》(대만: 商務印書館四庫全書本): “言殷然之雷聲, 在彼南山之南. 何爲此時違去此所乎? 蓋以公家之事, 而不敢違暇也”

59) 程俊英: “息, 喘息. 《說文》: ‘息’, 喘也.”

60) 毛亨: “處 居也”

를 “何斯違斯? 莫敢或違; 何斯違斯? 莫敢違息; 何斯違斯? 莫敢違處.”라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녀의 남편의 安危에 대한 염려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깊이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즉 이는 지금 “천둥소리”의 知覺整體 속에서 인식된 참나적 理性心理로써, 여기에는 매장 結句에서 “振振君子, 歸哉歸哉!”라는 反復詞語를 이끌어내게 한 이성적 심미심리의 환경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何斯違斯? 莫敢或違” 등의 자문자답식의 理性的 思考의 과정이 없었다면, 「개인생명」을 「公義의 實踐」에 우선하는 “振振君子, 歸哉歸哉”라는 심미염원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러한 심미인식은 「생명가치」에 대한 자각으로서, 그 어떤 公義를 표방하는 國事라도 개인생명이 있고나서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는 남편의 생명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思婦의 지극한 부부기간의 審美心理도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邶風<sup>61)</sup>의 <雄雉>는 위의 시가와와는 차별화된 심미관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장기간 勞役に 동원된 남편의 귀환을 苦待하고 있는 思婦의 노래이지만, 남편을 향한 귀환을 열망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객지생활의 安寧을 기원하는 일면을 본 시가의 主旨로 하고 있다. 原詩를 보면:

제1장

雄雉于飛,	장끼가 하늘로 날아오르네,
泄泄其羽. <sup>62)</sup>	서서히 날개를 펼치면서.
我之懷矣,	내가 그리워하는 임이시여,
自詒伊阻. <sup>63)</sup>	내 자신이 만든 별리의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61) 주석 15)의 衛風관련 주석을 참조할 것.

62) 程俊英: “雉, 野鷄. 詩中的雄雉比喻丈夫” “泄泄, 同洩洩, 鼓羽舒暢的樣子”

63) 程俊英: “詒, 同遺, 遺留. 自詒, 自找, 自取之意. 伊, 同繫, 此, 這. 《鄭箋》: ‘伊, 當作繫, 繫, 猶是也.’ 阻, 憂. 《玉篇》: 阻, 憂也.”

## 제2장

雄雉于飛,      장끼가 하늘로 날아오르네,  
 下上其音.      아래위로 비상하며 노래를 부르누나.  
 展矣君子,      성실하신 임이시여,  
 實勞我心.      너무나 그리워서 이네 마음 놓을 길이 없답니다.

## 제3장

瞻彼日月,      번갈아 뜨고 지는 저 日月 바라보니,  
 悠悠我思.      나의 그리움이 끝도 없이 일어나네.  
 道之云遠,      길은 아득하게 멀고 또 머나니,  
 曷云能來.<sup>64)</sup>      어떻게 이네 몸 곁으로 오실 수 있을거나.

## 제4장

百爾君子,      세상의 ‘군자’라는 분들이시여,  
 不知德行?<sup>65)</sup>      누구인들 덕행을 중시하지 않으리오?  
 不伎不求,      만약 남을 해치거나 재물을 탐내지 않으신다면,  
 何用不臧!<sup>66)</sup>      무슨 일을 하신들 훌륭하지 않을까요!

시적 화자는 1,2장에서 하늘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장끼의 힘찬 모습 (“雄雉于飛，泄泄其羽.”)과 공중을 오르내리며 신명 나게 노래하는 장끼의 音聲(“雄雉于飛，下上其音.”)으로부터 그의 自由自在한 표현성을 感知하자, 宦途에 오른 남편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聯想되면서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思婦는 “雄雉”의 知覺整體를 觀照할 수록 그의 出他를 만류하지 못한 후회와 空閨의 고독을 극복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自詒伊阻；實勞我心”) 또한 3장으로 와서는 수없이 뜨고 지는 “日·月”(“瞻彼日月”)로부터 이의 반복적인 표현성을 感知하자 그녀의 뇌리에는 남편과의 別離의 시간적 길이가 이에 정비례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심미판단이 스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悠悠我思”를 뇌이는가 하면;

64) 滕志賢: “道之云遠，猶云道遠也。之、云，皆語助詞，無義。下句‘云’字同。”

65) 朱熹: “百，猶凡也。…言凡爾君子，豈不知德行乎。若能 不伎害又不貪求，則何所爲而不善哉”

66) 朱熹: “伎，害。求，貪。”  
 毛亨: “臧，善也”

또한 한 쪽으로는 別離의 공간거리를 聯想에내어서 “曷云能來?”라는 理性心理를 부가하여 再會難忘의 현실감을 自認하는 心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더니 마침내 제4장에 와서는 소위 “止乎禮義”의 理性心理를 드러내어 思婦중심의 개인정감을 안으로 수렴해 보이고 있다. 즉 思婦는 3장까지 일관하던 이른바 “發乎情”의 感性心理를 세상의 “君子”들을 향해, 理性心理로써 警戒하는 한 마디를 던지고 있다. 즉 “만약 남을 해치거나 재물을 탐내지 않으신다면, 무슨 일을 하신들 홀륭하지 않을까요 不伎不求 何用不臧!”라는 孔門의 「克己之術」로써, 「仁」을 실현하는 社會善을 피력하여 亂世에 던져진 남편이 「明哲保身」하면서, 「公益善」을 이룩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내심을 이에 함축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어느 「思婦」처럼 別離의 고통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인해, 한껏 비애의 우수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그녀의 理性心理는 이러한 감성 심리를 균자답게 통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가치를 「公益善」의 실현에 두고 있는 儒家的 심미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확실히 본 思婦의 교양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王風의 <君子于役>에서도 思婦의 심미의식은 허황되지 않다. 原詩를 보면:

1章

君子于役,	고향 떠나 원방으로 勞役に 나가신 임,
不知其期.	돌아오실 그 시기 알 수 없다네.
曷至哉?	어느 날에 오시려나?
鷄棲于埘,	닭들은 잠을 자러 塍에 오르고,
日之夕矣,	서녘하늘은 저녁안개로 석양을 가리고,
羊牛下來.	소와 양은 산기슭에서 내려오누나.
君子于役,	임은 멀리 徭役に 나가셨으니,
如之何勿思?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2章

君子于役,	멀리 부역에 나가신 임,
-------	---------------

不日不月.<sup>67)</sup> 언제 徭役생활을 끝 낼 수 있으리오.  
 曷其有佻? 어느 때 다시 만나 한 자리에 모일이거나?  
 鷄棲于桀,<sup>68)</sup> 닭들은 분분히 닭장으로 돌아와 햇대위로 오르고,  
 日之夕矣, 서녘하늘의 저녁안개는 석양을 가리고,  
 羊牛下括. 소와 양은 산기슭에서 내려와 우리로 들어가누나.  
 君子于役, (그러나)그이는 먼 곳으로 부역을 나가셨으니  
 苟無饑渴! 어쩌면 허기가 지도록 굶주리시지나 않으시는지!

본 시가는 兩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章이 모두 시작하는 3句를 詩的 話者인 思婦의 內心の 動向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1장을 보면, 지금 그녀는 勞役나간 남편의 表象을 腦裏에 喚起하여 그의 귀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審美心理 속에 젖어 있다. (“君子于役, 不知其期. 曷至哉?”), 바로 이때 그녀의 눈앞으로 전개되는 一群의 審美情景들, 이를테면: 잠자리에 들기 위해 뉘에 오르는 닭의 무리(“鷄棲于桀”), 저녁안개로 드리워진 서녘하늘(“日之夕矣”), 산기슭을 내려오는 소와 양들(“羊牛下來”). 이들의 면면에서, 모두 日沒의 시각에 자기의 歸巢를 찾는 평화로운 표현성을 感知하면서, 현재 자신만이 혼자가 되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對比聯想이 일어나자, 자신도 모르게 結句에서 “君子于役, 如之何勿思?”라는 反語的 情感語를 토해내어 思婦의 고독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고독감은 2장의 起首 3구로 다시 이어져서, 그녀의 뇌리에는 다시 1장의 起首 3구에서 되뇌었던 남편에 대한 審美表象을 재삼 소환하여 “멀리 부역에 나가신 임, 언제 요역생활을 끝낼 수 있으리오, 어느 때 다시 만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君子于役, 不日不月. 曷其有佻?”라는 재회의 열망을 토해내고 있다. 바로 이때 思婦의 시야 안으로 1장과 동일한 심미정경인 “뉘에 오르는 닭의 무리鷄棲于桀”, “저녁안개로 드리워진 서녘하늘日之夕矣”, “산기슭을 내려오는 소와 양들羊牛下來”의

67) 王靜芝: “不日不月, 言不可以日月計之. 言其時間之無限定, 不知何時能止也.”

68) 程俊英: “有, 又. 佻, 聚會.” “桀, 亦作櫟” 括: 通“佻”《釋文》: “括, 本亦作佻.” 陳喬樞《三家詩遺說考》: “佻, 括, 會. 古聲義並同.”

감성형식을 다시 반복하여 재현시킴으로써, 思婦의 남편에 대한 기다림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結句에 와서는 “그이는 먼 곳으로 부역을 나가셨으니, 어쩌면 허기가 지도록 굶주리거나 앓으시는지! 君子于役 苟無饑渴!”라는 모성애적 심미심리를 표현함으로써 지금까지 空閨의 情恨에 휩싸여 자기중심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염려하는 理性心理를 회복함으로써 思婦의 심미심리가 利他的인 溫柔敦厚함을 드러내고 있다.

말하자면, 1,2장에 걸쳐 줄곧 日沒의 시각에 歸巢하는 가축의 행열을 통해, 思婦의 空閨의 情恨이 極限에 이르는 순간 문득 行役중의 남편의 처지로 돌아서서 보는 審美거리의 조정으로 인해, 별리로 인한 자신의 괴로움 보다, 행역 중의 남편이 겪고 있을 고통을 떠올리며 理性心理를 회복하는 「中和」의 美意識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위의 3종 審美心理는 모두 公事로 출타 중인 남편으로 인해, 空閨를 지키는 思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動向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테면, 부부의 본질 혹은 존재의미는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탄생된다는 것과 남편에게 公益善의 실현보다는 家族愛를; 公義의 실천보다는 개인의 생명가치를 우선시 할 것을 염원한다는 것; 思婦의 자신을 위한 개인중심보다는 남편중심의 심미배려 등에서, 우리는 男權과 집단 의식이 우선적으로 수호되었던 當時 사회적 배경하에서 부녀자들의 이와 같은 심미의식은 다분히 先進的인 美意識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 된다. 아마도 空閨라는 특징적인 상황인 만큼 그들의 남편에 대한 심미태도는 더욱 부부간의 개인행복과 개인생명의 추구가 절실할 수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가정의 富貴를 가져올 수 있는 儒家的 처세관인 公益善의 실현 역시 그녀들에게는 「美的」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 4. 怨婦의 審美意識

怨婦란, 남편과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幽明을 달리

하여 홀로 사는 婦人을 지칭한다.<sup>69)</sup> 따라서, 怨婦와 남편과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남편은 가해자이고 아내는 피해자라는 상황 하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는 해당시편이 3수가 보인다. 즉 <邶風>의 <終風>, <陳風><sup>70)</sup>의 <防有鵲巢>와 <唐風><sup>71)</sup>의 <葛生>이다. 위의 3작품은 2가지 내용으로 大別된다.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恩愛의 정감을 상실하고서도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理性心理」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亡夫를 향하여 生死間에 함께할 것을 기원하는 심미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前者에 해당하는 심미경계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위의 3개 詩篇중 <終風>과 <防有鵲巢>가 해당된다. 먼저 <邶風>의 <終風>을 보면, 怨婦는 남편에게 희롱당한 이후에 피해자로서의 고뇌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를 향한 심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순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原詩를 보면:

## 제1장

終風且暴, 狂風이 일어나더니 소나기도 내리네,  
願我則笑,<sup>72)</sup> 그이는 나만 보면 우롱하며 비웃어요.  
謔浪笑敖, 낙살 좋게 우롱하고 제멋대로 비웃으니,  
中心是悼. 이네 가슴 상처받아 슬퍼잡니다.

## 제2장

終風且霾, 狂風이 일어나더니 흙바람이 몰아치네.  
惠然肯來. 그이는 마음이 돌아서면 집으로 돌아오죠.  
莫往莫來, 그러나 요즈음은 발길을 끊었어요,  
悠悠我思. 그래도 그리운 마음은 끝이 없어요.

69) 《漢語大辭典》(중국어: 漢語大辭典出版社) 卷7, p.451.

70) 《陳風》의 <株林>의 小序: “刺靈公也. 淫于夏姬, 驅馳而往, 朝夕不休息也.” 按陳靈公十五年遇殺, 即魯宣公十年, 周定王八年. 是時上推至東周, 近一百七十年, 爲《國風》中最晚作品. 惟<陳風>最早詩篇, 今已不可考. 《陳風》의 발생지역은 지금의 河南省東部淮陽一帶.(金啓華, p.287)

71) 唐風은 晉昭公 初年에서 晉憲公 中年까지 즉, 대략 東周 初1백년 안에 지어진 시가로서, 그 발생지역은 지금의 山西中部 太原일대 지역임.(金啓華, p.242)

72) 滕志賢: “終風且暴, 既颶風又下暴雨. 終……且, 既……又. 暴, 通「瀑」. 急雨也.”

제3장

終風且噎, 광풍이 일어나더니 날씨조차 흐려지네,  
 不日有噎. 하루해도 가기 전에 날씨가 또 흐려져요.  
 寤言不寐,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오,  
 願言則嚏.<sup>73)</sup> 그러나 원하기는 재채기 하시거든 내가 그대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아 주세요.

제4장

噎噎其陰, 먹장구름 하늘을 뒤덮더니,  
 虺虺其雷. 우지곤 땅땅 천둥이 치기 시작하네.  
 寤言不寐, 자다가 깨어나면 눈을 흰하게 뜬 채 잠을 이루지 못해요,  
 願言則懷. 그러나 그이가 이 몸을 생각하며 뉘우쳐주셨으면 해요.

위의 시기는 시적 화자인 怨婦가 每章의 起首에서 “광풍과 소나기(風·暴)”, “광풍과 흙바람(風·霾)”, “광풍과 음산한 일기(風·噎)”, “먹장구름이 덮힌 하늘과 요란하게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噎噎·虺虺)” 등의 변화무쌍한 공포의 표현성으로부터 매사에서 남편의 放縱에 가슴 조려 지 내던 억울한 內心이 聯想되자 異質同構의 無賴漢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怨婦는 이의 知覺圖式에 대한 거듭 대는 심미인식을 통해, 매장의 結尾 2구에서 그녀의 각종 審美狀態를 구체화 시켜 보이고 있다. 즉 1장의 結句에서는 인격적으로 우롱당하는 서러움으로 인해 맞보게 되는 애상(“謔浪笑教, 中心是悼”)을 2장에서는 자신의 기분대로 드러내며 無禮를 밤 먹듯 범하는 무뢰한이 건만 그의 발길이 끊겨지고 나니 그래도 끝없이 그리워지는 審美心理(“莫往莫來, 悠悠我思.”)를; 3장으로 오며는 아예 무뢰한의 괴씸한 행위로 인해 밤잠을 설치면서도, 오히려 다른 한 쪽 가슴에선 자신이 恩愛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기원하는 모순심리(“寤言不寐, 願言則嚏.”)를; 4장에 와서도 여전히 3장과 동일한 심미심리를 반복하

73) 金啓華: “嚴粲: ‘言我爲傷悼汝之故, 寤覺而不寐, 願汝嚏也……願其嚏而知己念之也.’”  
 程俊英: “寤言, 醒着說話. 言, 助詞. 無義. 嚏, 打噴嚏. 舊時民間有‘打噴嚏, 有人想’的諺語”

여 남편의 回心을 염원하는 모순심리 “寤言不寐，願言則懷”를 들어내고 있다.

말하자면, 怨婦의 「怨」이 기실 「和諧」를 위한 怨」임을 보여주어, 이른바 “怨而不怒”의 審美境界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와 같은 심미관은 곧 儒家의 利他的인 온유돈후한 심미의식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어지는 <陳風>의 <防有鵲巢>에서는 시적 화자인 怨婦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외방인의 讒言으로 인해 그들 부부사이에 審美의 단절을 겪고 있다. 原詩를 보면:

## 제1장

防有鵲巢，      어떻게 제방 주변에 까치가 둥지를 틀수 있으며，  
邛有旨苕。<sup>74)</sup>   어떻게 높은 언덕 위에서 맛 나는 완두넝쿨이 자랄 수  
있겠어요.

誰侑予美？      누구가 나의 情人과 離間을 시키나요？

心焉切切。<sup>75)</sup>   마음속이 너무나 우울해지네요.

## 제2장

中唐有薺，      어찌하여 묘당 안길에 기왓장을 깔아놓을 수 있으며，  
邛有旨鵲。<sup>76)</sup>   어찌하여 높은 언덕 위에서 맛나는 水草가 자랄 수 있나요.

誰侑予美？      누구가 나의 情人과 離間을 시키나요？

心焉惕惕。      마음 속이 두려움고 괴롭네요.

본 시편에서 怨婦의 審美活動의 근원은 詩 밖에 있다. 왜냐하면 매장 起首 2구에서 제시한 비유적 보조관념으로 보건대, 怨婦는 이미 詩的 現

74) 金啓華: “朱熹: ‘防, 人所築以捍水者.’ 馬瑞辰: ‘鵲巢宜于林木, 今言防有, 非其所應有也, 不應有而 以爲有, 所以爲讒言也.’ 毛亨: ‘邛, 丘也. 苕, 草也.’ 馬瑞辰: ‘是苕生于下濕, 今詩言邛有者, 亦以喻讒言之不可信.’”

王靜芝: “苕, 葉青莖綠, 可食.”

75) 程俊英: “侑, 欺誑. 予美, 我愛, 指作者的情人. 切切, 憂愁的樣子.”

76) 程俊英: “唐, 古時朝堂前或宗廟門內的大路. 中唐, 即 中庭的道路. 鵲, 雜色小草, 又名綬草.”

실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外方人의 讒言으로 인해, 그녀의 「情人」으로부터 薄待를 받아 왔다는 경험적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夫婦관계란 일반적으로 主·從관계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적 화자는 詩의 밖에서 이미 外방인인 참언 때문에, 이들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남편이 주·종관계의 원색적인 본색을 띠움으로 인하여, 시적 화자는 다만 억울하고 두려운 심정만 되뇌일 뿐 그 어떤 伸冤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그동안 신뢰해 왔던 남편에 대한 審美表象을 새삼 뇌리 속에 感知하게 되면서, 남편을 향한 새로운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현재의 억울한 심정을 脫規律의 事例에 빗대어 형상화시킴으로써, 남편에 대한 원망의 內心을 그 속에 함축시키고 있다. 즉 누군가가 응당 숲속에서 등지를 틀어야 할 “鶻”이 죄우사방이 흰히 트여있는 제방 둑 주변에서 등지를 튼다고 말한다면(“防有鶻巢”) 혹은 습지에서 자라야 할 “蓍”가 높은 언덕 위에서 성장한다(“邛有旨蓍”)고 말한다면 이는 物理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니, 믿지 말아야 당연하다는 것과; 정숙을 요하는 廟堂의 안길 바닥위에 지붕으로 올리는 기왓장을 깔아놓았다거나(“中唐有鼈”), 습기가 부족한 높은 언덕위에서 水草가 자란다(“邛有旨鶻”)고 하는 謠言이 떠돈다면, 이 역시 마땅히 믿지 말아야 했었다는 怨婦의 「원관념」을 보조관념 속에 함축시키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풍유적 표현은 바로 듣는 자에게는 경계가 되고 말하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儒家的 사회교화방법의 일종으로 화자의 남편에 대한 심미태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이미 그 讒言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와 같이 그 참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언을 제공한 外방인만을 원망하면서, 남편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의 恩愛를 상실한데 대한 憂愁와 恐怖만을 內心에서 반복적으로 되뇌므로써(“誰侮予美? 心焉切切 誰侮予美? 心焉惕惕”) 남편과는 美的 거리조절을 하고 있다. 이는 곧 남편이야 어떤 잘못도 정당화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다시없는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남편과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는 「主從의 관계」라는 현실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怨婦의 “怨”이 다시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남편에 대하여 「女必從夫」라는 「主從 관계의 굴레」 덮어 씌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여서 怨婦의 심미태도는 남편을 향하여, 다시 화합하고자하는 심미기대를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미태도는 극단을 지양하고 儒家的 溫柔敦厚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이번에는 亡夫를 향하여 生死間에 함께할 것을 기원하는 怨婦의 시가인 <唐風>의 <葛生>을 보자. 먼저 原詩를 보면,

## 1장

葛生蒙楚,      칙녕쿨이 온통 가시나무 위를 뒤덮고,  
 藟蔓于野.<sup>77)</sup>    거지덩굴은 온통 野外에 넓게 퍼져있네.  
 予美亡此,      나의 임 이미 인간세를 떠나셨으니,  
 誰與獨處.<sup>78)</sup>    누가 나를 벗하여 빈방을 지켜주리.

## 2장

葛生蒙棘,      칙녕쿨은 온통 대추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藟蔓于域.<sup>79)</sup>    거지덩굴은 온통 무덤 부근으로 번지고 있네.  
 予美亡此,      그리운 임 이 세상에 안계시니,  
 誰與獨息.<sup>80)</sup>    누가 나를 벗해주랴.

77) 程俊英: “蒙, 覆蓋. 楚, 荊樹. 藟, 草名. 它和葛藤都是蔓生植物, 必須依附在大樹上才能生存. 蔓, 蔓延.”

78) 王靜芝: “予, 我也. 美, 所美之人, 其君子也. 亡, 去也. 不忍言其死, 故曰去耳. 誰與, 與, 共也. 言與誰相共也. 獨處, 言惟有獨處耳.”  
 程俊英: “予美, 猶今言‘我愛’, 婦人稱她的丈夫. 亡, 不在. 誰與, 誰和我同居. 有人說, 這句是說‘誰伴死者孤獨地長眠地下呢?’可備一說”

79) 滕志賢 程俊英 王靜芝: “棘, 棗也. 域, 塋域也, 即墓地.”

80) 王靜芝: “息, 止息也. 獨自止息亦言獨處之義也.”

3장

角枕粲兮, 副葬品으로 넣은 각침이 영롱하게 빛을 내고,  
 錦衾爛兮,<sup>81)</sup> 亡者에게 덮은 이불 찬란하게 빛이 났었죠.  
 予美亡此, 나의 임 이 세상을 하직하셨으니,  
 誰與獨旦! 누구랑 벗하여 새벽을 밝히리.

4장

夏之日, 길고 긴 여름 날 낮시간,  
 冬之夜, 끝도 없이 지루한 겨울밤.  
 百歲之後, 오직 백년 후에,  
 歸于其居. 그의 무덤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지.

5장

冬之夜, 끝도 없이 지루한 겨울밤,  
 夏之日, 길고 긴 여름 날 낮시간.  
 百歲之後, 오직 백년이후에나,  
 歸于其室. 그의 무덤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지.

위의 시편속의 詩的 話者인 怨婦는 1장에서 “가시나무楚”위를 덮으면서 자라는 “쫄녕쿨葛”과 “들관野”를 뒤덮으면서 자라는 “거지덩굴藪”; 2장에서 “棘”을 덮으면서 생장하는 “쫄녕쿨葛”과 “城”위를 뒤덮으면서 자라는 “거지덩굴藪”의 상호의존적인 物性的 표현성으로부터 자신이 의지해 왔던 짝은 이제 故人이 됨으로 인해, 쓸쓸하게 홀로 남게 된 자신의 신세가 感知되자, 異質同構의 강렬한 「葛·藪의 知覺圖式」이 획득되면서, 空閨의 고독을 통해, 혼자 남겨 두고 떠나버린 亡夫에 대한 원망이 내재된 “누구가 나를 벗하여 빈방을 지켜주리; 누가 나를 벗해주랴. 誰與獨處; 誰與獨息”라는 審美對象의 喪失感을 절규하고 있다. 3장에서는 관속에 넣은 “角枕”과 “錦衾”의 찬란한 葬禮性的 표현성으로부터 이승에서 함께 나누었던 배개머리의 사랑들을 제차 感知하면서, “角枕·錦衾”의 知覺整體를 획득하자, 1,2장에서 보다 심화된 심미인식인 “누구랑 벗하여 새벽을 밝히리. 誰與獨旦!”라는 審美對象의 喪失感을 재삼 절규하고 있다. 재언하면, 위의 3

81) 程俊英: “角枕, 用獸骨做裝飾的枕頭, 死者所用. 粲, 同燦, 華美鮮明的樣子.”

장에서 이와 같은 시적 화자의 심미대상에 대한 상실감의 표현은 사실 그 기저에 홀로 두고 떠나버린 亡夫에 대한 원망이 내재된 것으로서, 이는 그들 부부지간의 恩愛의 깊이를 言外에 흐르게 하고 있다. 그러기에 4,5장으로 오면 怨婦는 다시 “夏·冬”의 긴 낮과 지루한 “밤夜”이라는 相對比되는 二季의 物性에서 상호 공통성을 띠고 있는 「긴 낮日」과 「지루한 밤夜」이라는 시간적 표현성을 感知하면서, 홀로 감내해야 할 기나긴 旅程의 고통이 이에 감응되면서 「夏·冬」의 知覺完形을 획득하자, 그녀의 심미인식은 다시금 확대되어, 먼 훗날의 歸宿處를 “歸于其居; 歸于其室”라고 떠올려, 상실된 심미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審美心境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亡夫에 대하여 怨婦의 이러한 生死間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고자하는 審美心境은 이들 부부지간의 琴瑟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오로지 亡婦의 亡者와의 자기 同一視라는 「抒情的 自我」만이 존재하여, 심미정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宗法의 존재는 본래 기득권자의 자기수호를 위한 정치성을 띤 하나의 제도였지만, 당시의 부녀자들은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요구하는 이 몰인격한 형틀을 오히려 운명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희생의 심미의식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향한 「怨」의 정감조차도 이렇게 다시 「和諧」를 전제로 하는 「溫柔敦厚」한 儒家的 婦德性을 띄운 심미태도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5. 棄婦의 審美意識

棄婦란, 字意 그대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을 지칭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편은 모두 3편이다. 즉 <邶風>의 <谷風>과 <小雅·節南山之什>의 <小弁> 및 <衛風>의 <氓>이다. 이 3수의 詩篇을 보면 앞의 <谷風>은 棄婦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편에 대하여 유가적 온유돈후함으로써 남편과 主從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미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뒤의 두 시편은 棄婦가 되면서 남편의 失道와 失德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아내가 아닌 인간으로서 맞서는 평등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럼 먼저 <邶風>의 <谷風>을 보기로 한다. 본 시가 속의 시적 화자는 가난한 농민에게 시집을 가서, 부부의 노력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때부터 변심을 하게 된 것이다. 原詩를 보면:

제1장

習習谷風,      飝飝 山谷에서 큰 바람 불어대더니,  
以陰以雨.<sup>82)</sup>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리네.  
匪勉同心,      우리 부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해왔거늘,  
不宜有怒.      이렇게 능멸하심은 안 되는 일이죠.  
采葑采菲,      순무랑 무를 캐어낼 때,  
無以下體.<sup>83)</sup>    잎과 줄기를 버리지는 마세요.  
德音莫違:      내게 하신 맹서 잊지 말아요,  
“及爾同死.”<sup>84)</sup> “당신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이오”

제2장

行道遲遲,      짐박으로 쫓겨 나와 티백터백 옮기는 무거운 발걸음,  
中心有違.<sup>85)</sup>    마음속은 원망으로 넘친다오.  
不遠伊邇,      멀리는 그만 두고라도 아주 가까운,  
薄送我畿.<sup>86)</sup>    하다못해 門앞까지라도 바래다주시지.

82) 程俊英: “習習, 猶颯颯, 風聲. 谷風, 來自山谷的大風. 以, 又.”  
83) 鄭玄: “此二菜者, 蔓菁與葑之類也. 皆上下可食, 然而其根有美時, 有惡時, 采之者不可以其根惡時並棄其葉.” 蔓菁, 即 蕪菁. 蕪菁與葑皆屬普通菜蔬. 葉與根皆可食. 但其根有時略帶苦味, 人們有因其苦而棄之. 後因以“葑菲”用爲鄙陋之人或有一德可取之謙辭.  
王夫之《詩經稗疏》(南菁書院): “此二菜, 初則食葉, 后乃食根. 當食根時, 葉粗老而不堪食, 則是根可食而苗爲人棄. 無以下體者, 不可以其莖葉之惡而不采其根也. ……草木逆生, 則根在下位上體, 葉在上爲下體.”  
葑菲: 훗날에 와서는 애정으로 결합되어 서로 불만스럽드라도 버리지 아니하는 부부관계에 비유하기도 함.  
84) 程俊英: “德音的本義是‘善聞令名’, 這裏似指她丈夫曾對她說過的好話.”  
85) 馬瑞辰: “《釋文》《韓詩》云: ‘違, 很也’ ……很亦恨也.” (金啓華 재인영)  
程俊英: “遲遲, 緩慢. 中心, 即心中. 有違, 指行動和心意相違背. 有人訓違爲怨, 有違, 即違違 亦通.”  
86) 滕志賢: “不遠伊邇, 言送我不遠, 而是太近. 伊, 猶維, 語助詞. 邇, 近也. 畿, 門檻

誰謂荼苦? 누가 씬바귀를 쓰다고 했는가?  
 其甘如飴. 내 경우와 비교하면 냉이처럼 단 것을.  
 宴爾新昏, 그이는 새사람에 그만 반하여,  
 如兄如弟. 두 사람 가깝기가 형제인듯 하여라.

## 제3장

涇以渭濁, 涇水의 流入으로 渭水는 탁한 물이 되지만,  
 湜湜其止.<sup>87)</sup> 그 밑바닥은 여전히 맑은 것을.  
 宴爾新昏, 그이는 새사람에 그만 반하여,  
 不我屑以.<sup>88)</sup> 쳐다 보려 조차도 이제는 않네.  
 毋逝我梁, 내가 놓은 어살에 가지를 말고,  
 毋發我筍.<sup>89)</sup> 내가 놓은 그 통발 들추질 마세요.  
 我躬不閱 이미 이네 몸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惶恤我後.<sup>90)</sup> 무슨 여유 있어서 뒷일을 걱정하라.

## 제4장

就其深矣, 강물이 깊은 곳을 만나게 되면,  
 方之舟之.<sup>91)</sup> 뗏목에 의지하거나 배를 타고 건넌고요.  
 就其淺矣, 강물이 얇은 곳에 이르게 되면,

也.”

- 87) 姚際恒 《詩經通論》(中華書局): “涇濁渭清, 涇, 喻新昏者. 渭, 喻己. 謂涇誣以渭爲濁, 渭何嘗濁哉?”  
 屈萬里: “涇渭, 二水名. 在今陝西省. 涇濁渭清. 以 猶使也. 涇流入渭. 故言涇使渭濁.”  
 馬瑞辰: “按《說文》: ‘湜, 水清見底也.’ 引詩湜湜其止. 《說文》又曰: ‘止, 下基也.’ 湜湜即狀水止之貌. 《毛詩》舊本, 蓋本作止. 凡水流則易濁. 止則常清. ……詩意蓋謂水之流雖濁, 而止則清. 以喻己之色雖衰. 而德則盛. 止當從《說文》作止.”(金啓華 재인용)  
 王應麟 “《地理志》涇水出安定郡涇陽縣西開頭山(今原州百泉縣), 東南至京兆陽陵縣入渭(今京兆府高陵). 渭水出隴西郡首陽縣西南鳥鼠山西北南谷山(渭州渭源縣, 今熙州渭源堡), 東至京兆船司空縣入河(今華州華陽縣).”(金啓華 재인용)
- 88) 馬瑞辰: “此不我屑以, 以, 猶與也, 不我屑以, 謂不我肯與.”(金啓華 재인용)
- 89) 毛亨: “逝, 之也. 梁, 魚梁.”  
 朱熹: “梁, 堰石障水, 而空其中, 以通魚之往來者也.” “筍, 以竹爲器. 而承梁之空以取魚者也.”
- 90) 毛亨: “閱, 容也.”
- 91) 滕志賢: “就, 到. 遇到. 方, 竹筏. 此句方·舟皆作動詞”

泳之游之.<sup>92)</sup> 헤엄을 쳐서 건넌답니다.  
 何有何亡.<sup>93)</sup> 집이 풍족하건 아니하건 간에,  
 匪勉求之. 언제나 死力을 다해 생활해나갔지요.  
 凡民有喪, 이웃에 어려움이 있으면,  
 匍匐救之.<sup>94)</sup> 기를 쓰고 돕기도 하구요.

제5장

不我能備, 따듯이 위해주는 마음은 커녕,  
 反以我爲讎.<sup>95)</sup> 오히려 원수같이 나를 대하네.  
 既阻我德, 내 정성을 물리쳐 내버리시니,  
 賈用不售. 안 팔리는 물건신세 나만 슬프네.  
 昔育恐育鞠, 예전에 두려움과 가난 속에 살적에는,  
 及爾顛覆.<sup>96)</sup> 들어서 함께 환란을 겪어냈건만.  
 既生既育, 인제 겨우 살림이 넉넉해지자,  
 比予于毒. 그대는 이 몸을 독극물처럼 외면하시네.

제6장

我有旨蓄, 내가 맛 나는 반찬 준비하는 것은,  
 亦以御冬.<sup>97)</sup> 이 또한 추운 겨울 한 때를 지내기 위함이죠.  
 宴爾新昏, 그이는 새 사람만 좋아하시니,  
 以我御窮. 궁할 때만 내가 필요했었나요.  
 有洗有潰, (지금은)고함치며 험상궂게 닦달만 하고,  
 既詒我肄.<sup>98)</sup> 오로지 고된 勞役만 요구하다니요.  
 不念昔者, 신흠초의 살뜰했던 정분은 까맣게 잊었다니,  
 伊余來暨.<sup>99)</sup> 당년엔 그토록 나를 사랑했었건만.

92) 朱熹: “潛水曰泳, 浮水曰游.”

93) 滕志賢: “亡, 通無.”

94) 程俊英: “匍匐, 本義是手足伏地走 這裏是盡力的意思”

95) 程俊英: “不我能備, 三家詩作‘能不我備’. 能, 乃. 備, 愛. 讎, 通仇”

96) 程俊英: “育恐, 生活恐慌. 育鞠, 生活困窮. 朱熹 《詩集傳》引張子曰: ‘育恐, 謂生於恐懼之中, 育鞠, 謂生於困窮之際’ 顛覆, 指患難”

97) 程俊英: “旨, 美. 蓄, 醃的乾菜. 有人說, 蓄是菜名, 亦通. 御, 同禦, 抵擋.”

滕志賢: “蓄, 指儲藏之乾菜醃菜. 御, 通禦, 抵禦. 引申爲度過.”

98) 程俊英: “有洗有潰, 即洗洗潰潰, 本義都是形容水激流的樣子, 這裏是借用, 形容人動武和發怒的樣子.”

99) 程俊英: “伊, 惟. 來, 語助詞, 無義. 暨, 愛.”

시적 화자인 棄婦는 제1장의 起首 2구(“習習谷風, 以陰以雨.”)에서 山谷에서 “씩씩習習” 불어대는 “큰 바람谷風”과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는以陰以雨” 「변화난축」한 山中日氣의 표현성으로부터, 남편의 변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內心の 우환의식을 感知하자, 異質同構의 「知覺完形」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棄婦는 남편의 失道에 대하여 “采葑采菲”라는 감성형식으로써 그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심미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지금까지 同苦同樂 해온 사이이니 마땅히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심리(“黽勉同心, 不宜有怒”)를 언급한 다음, 이러한 이해를 심화시켜주기 위하여, “순무와 무(葑·菲)”의 구성형식인 「뿌리(上體)와 잎(下體)의 관계」를 제시하여, 이들 兩者는 본시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이니, 上體인 뿌리가 완숙해지면서 下體인 잎사귀가 老化 되었다고하여 버리면 되겠느냐<sup>100)</sup>는 요지를 내포하여, 남편이 신혼당시에 棄婦에게 들려주었던 달콤한 맹서(“及爾同死”)를 喚起시켜, 「그의 失道」를 경계함과 동시에 그녀의 審美理想인 「百年偕老」에 대한 심미염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棄婦는 계속되는 2장에서도 「山中日氣의 지각완형」에 대한 感知를 거듭 심화시켜 남편의 태도에 대한 私的 情緒를 가일층 深化시키고 있다. 즉 話者를 내칠 때의 박정한 태도를 상기하여 “멀리는 그만 두고라도 아주 가까운, 하다못해 門앞까지라도 바라다주시지. 不遠伊邇, 薄送我畿.”라는 원망어으로써 당시의 분노를 되새기고 있다. 화자는 또한 그때의 심리고통을 “누가 씌바귀를 쓰다고 했는가? 내 경우와 비교하면 냉이처럼 단 것을. 誰謂荼苦? 其甘如薺.”이라고 털어놓아 그녀의 哀傷의 깊이를 비유적으로 형상화시키는가하면, 結句에서는 남편의 새로 생긴 여인에 대한 다정함을 “如兄如弟”라고 표현하여, 남편의 失道」의 엄중성을 표출하고 있다.

3장으로 외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각완형인 「涇水의 知覺圖式」을 획득한다. “涇水”란, 王應麟의 《地理志》에 의거하면<sup>101)</sup> “渭水”로 흘러드는 강줄기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渭水”가 “涇水”의 流入으로 “混

100) 주석 83)을 참조할 것.

101) 주석 87)을 참조할 것.

濁”해지지만, “渭水의 基底”까지는 흐리게 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적 화자가 「흐려진 渭水의 표현성」을 통해, 자신의 美色은 예전과 같지 않으나 심령의 바탕이 되는 德性만은 오히려 빛이 나고 있다는 內心의 자부심을 感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녀의 내적 자부심도 다시 한 번 남편의 變心에 울켜 치미는 격분(“宴爾新昏,不我屑以.”)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놓은 어살에 가지를 말고, 내가 놓은 그 통발 들추지 마세요 毋逝我梁, 毋發我筍” 라는 아내로서의 주권의식을 선언하는 審美心理를 보이다가 결국은 다시금 현실 속의 자신의 처지로 돌아와서, “이미 이네 몸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뒷일을 걱정하라 我躬不閱, 惶恤我後.”라는 棄婦의 입장을 확인하는 태도를 보여, 婦權의 영역을 초월하거나 아니면 확대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悲運을 自認하는 피동적 심미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장에서는 그녀의 시집살이에서의 逆境들을 다시 喚起해내어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강물이 깊은 곳을 만났을 때는 뗏목이나 배를 이용하듯이; 또는 강물이 얕은 곳에서는 직접 헤엄을 쳐서 渡江을 하듯이(“就其深矣, 方之舟之; 就其淺矣, 泳之游之.”), 언제나 事理를 쫓아서 지혜롭게 가정을 운영해 왔음을 피력하여, 아내로서의 역할에 어떠한 何者도 없었음을 함축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結尾 4구로 와서는 집안의 형편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건 간에 매번 死力을 다하여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나갔으며, 심지어는 이웃사람들의 고난까지도 내일인양 도움으로써(“何有何亡, 黽勉求之. 凡民有喪, 匍匐救之”), 婦德의 실천에 약간의 하자도 없었음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장에서는 다시금 남편의 薄情한 태도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告變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생활형편이 궁핍함을 벗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은 話者를 원수같이 대할 뿐 아니라, 마치 독극물을 보듯이 한다(“反以我爲讎; 比予于毒”)라는 극단적인 告變方式을 취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표현은 또한 “팔리지 않는 물건 신세 賈用不售”라고 함으로써, 그녀의 「夫婦觀」은 여전히 「主從의 관계」라는 宗法의 틀을 벗

어나지 않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末章의 起首 2구에서도 여전히 話者는 남편의 越冬을 위한 밥상찬거리를 준비하는 심미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我有旨蓄，亦以御冬.”) 그러나 곧 이어서 남편의 “新婚情況”이 뇌리에 떠오르자 다시금 “궁할 때만 내가 필요했었나요(“以我御窮”)라는 直言을 토해내어, 棄婦의 정면과 반면의 심미심리의 충돌상을 여실하게 보여 주다가, 아예 아래 2구에서는 그녀를 향해 苦役을 강요하는 남편의 포악해진 음성과 뒹달하는 얼굴형상까지 (“有洗有滯”) 형상적으로 언급하여 審美의 상실감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結尾(不念昔者，伊余來塹.)에서 다시금 당년의 남편과의 감미로웠던 심미경험들을 되살리면서 현재의 남편태도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남편의 回心を 염원하는 심미심리를 함축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棄婦는 남편이 그 어떤 失道와 失德의 행위자라고 해도 이를 용인하고 사는 것이 그로부터 疏薄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훨씬 현실적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강물이 깊은 곳에서는 배나 뗏목을 이용하고 얕은 곳에서는 직접 해엄을 쳐서 건너면서라도 媿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굴욕적인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의 回心」을 기대하는 심미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그녀의 심미기대 속에는 「女必從夫」라는 그녀의 審美理想이 함축되어 있음도 쉬이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小雅》의 <小弁>102)에서의 棄婦는 남편에 대하여 어떠한 심

102) 本詩에 대한 이해는 衆說이 있다. 즉 幽王이 褒姒를 총애하여 태자인 宜臼를 추방하자 이에 억울한 심정을 태자가 시로 표현했다든가 혹은 宜臼의 스승이 대신하여 이를 지었다는 설이 있는가하면(《毛詩序》《詩集傳》); 혹은 宣王의 臣인 尹吉甫가 後妻에 미혹되어 前妻의 아들인 伯奇를 추방하자 이에 억울한 심정을 伯奇 자신이 지은 것(王先謙 《三家義集疏》)이라는 兩說이 있는가하면; 棄婦의 하소연으로 파악하는 설이 있다.(袁枚 《詩經譯注》의 다수) 前者 二說은 근거가 박약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通說임. 필자는 詩文의 전체적인

미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의 棄婦는 <谷風>에서의 棄婦와는 달리, 자기존중을 통해 남편의 失道와 失德을 판단하는 이성심리를 보임으로써, 宗法的인 思考에 젖어있는 여느 부녀자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본 시편은 무려 8장에 걸친 長詩이면서도, 또한 매장마다 起首에서 심미대상의 촉매인 「자연물상」이 번번이 바뀌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棄婦의 審美心境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原詩를 보면:

제1장

弃彼鷺斯, 즐거움에 겨워하는 저 갈가마귀 떼들이,  
 歸飛提提.<sup>103)</sup> 줄줄이 무리지어서 둥지로 날아드는구나.  
 民莫不穀, 사람들마다 모두가 생활이 즐겁지 않는 이가 없는데,  
 我獨于罹.<sup>104)</sup> 나만 홀로 근심 속에 쌓여서 살다니.  
 何辜于天,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지,  
 我罪伊何?<sup>105)</sup>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心之憂矣, 마음속에는 온통 슬픔뿐인데,  
 云如之何?<sup>106)</sup> 어찌해야 되단 말인가!

제2장

踟蹰周道, 훨씬 티어 있던 大路였는데  
 鞠爲茂草.<sup>107)</sup> 곳곳이 잡초가 우거져서 앞길을 막고 있네.  
 我心憂傷, 내 마음에 슬픔이 젖어드니,  
 惄焉如擣.<sup>108)</sup> 마치 공이 들고 심장을 쿵쿵 찡는 듯하네.  
 假寐永嘆,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서 언제나 탄식만 하고,  
 維憂用老.<sup>109)</sup>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늙은이가 다 되었네.

맥락으로 보아서 棄婦의 抒情으로 파악하였음.

- 103) 程俊英 “弃, 快樂 鷺, 卽鸚鵡 今名烏鴉 斯 語助詞 提提 群飛安閒的樣子”  
 104) 程俊英: “穀, 善. 指生活美好. 罹, 憂愁.”  
 105) 程俊英: “辜, 罪. 伊, 是.”  
 106) 滕志賢: “云, 語助詞.”  
 107) 程俊英: “踟蹰, 平坦的樣子.”  
 陳奐 《詩毛氏傳疏》(南菁書院): “鞠, 窮. ……窮, 猶塞也.”  
 108) 毛亨: “惄, 思也.” 孔穎達 “惄焉悲悶, 如有物之搗心也”

心之憂矣,      마음이 괴롭다가 보니,  
 疢如疾首.<sup>110)</sup>   번뇌로 인해 머리가 터질듯 하네.

## 제3장

維桑與梓,      뽕나무와 가래나무,  
 必恭敬止.<sup>111)</sup>   보기만 해도 부모님 대하듯 공경하노라.  
 靡瞻匪父,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靡依匪母.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不屬於毛,      이미 부친의 모발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不罹于裏.      모친의 피부와 연속되어 있지도 않다니.  
 天之生我,      이왕 하늘 님께서 이네 몸을 낳으셨다면,  
 我辰安在?<sup>112)</sup>   무엇 때문에 나의 時運을 이리도 꼬이도록 하시는가?

## 제4장

菀彼柳斯,      천 줄기 만 줄기로 휘늘어진 저기 저 버들 숲에서,  
 鳴蜩嘒嘒.<sup>113)</sup>   매미의 울음소리 쓰르람 쓰르람.  
 有灌者淵,      깊고 깊은 호수 주변으로는,  
 萑葦淠淠.<sup>114)</sup>   우거진 갈대숲이 무성하구나.  
 譬彼舟流,      이 몸은 마치 저 물위를 떠도는 배처럼,  
 不知所屆.      어느 곳에서 정박해야 할지 모르는 신세로세.  
 心之憂矣,      마음속이 너무나 우울하여,  
 不遑假寐.      신잠조차 실칠 틈이 없구나

## 제5장

鹿斯之奔,      시슴은 재빨리 달려가느라,  
 維足伎伎.<sup>115)</sup>   四足を 곧추세워 나르듯 하고.

109) 滕志賢: “用 以 而也”

110) 滕志賢: “疢, 熱病, 引申爲煩惱.”

111) 金啓華: “馬瑞辰: ‘桑梓懷父母, 睹其樹因思其人也.’ 林義光: ‘桑梓以與父母, 人于桑與梓猶恭敬之, 豈有于父母而不瞻依者乎? 下文靡瞻彼父, 靡依彼母乃問辭, 方與此句語氣相接.’”

滕志賢: “桑梓, 皆木名. 桑給蠶食, 乃養生之用; 梓爲棺木, 乃送死之具. 父祖所樹, 子孫見之, 則追念而加敬. 桑梓必在里居, 後遂稱桑梓爲故里耳. 止, 語助詞.”

112) 程俊英: “辰, 時, 指時運. 運氣.”

113) 朱熹: “菀, 茂盛貌”

114) 程俊英: “灌, 水深的樣子. 有灌, 卽 灌漑, 深深. 萑, 葦, 蘆葦. 淠淠, 茂盛的樣子.”

115) 屈萬里: “斯, 語詞. 伎伎, 馬瑞辰云: ‘速行之貌’ 按 伎伎, 一作 捷捷, 捷, 企通

雉之朝雉, 장끼는 아침마다 끼우끼우 노래하며,  
 尚求其雌.<sup>116)</sup> 또한 그의 짝인 까투리를 부르고 있네.  
 譬彼壞木, 나는 저 병든 나무처럼,  
 疾用無枝. 나뭇잎이 자라지 못하며 시들어 가고 있네.  
 心之憂矣,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나,  
 寧莫之知.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리오.

제6장

相彼投兔, 올가미 속에 갇힌 토끼를 보면,  
 尚或先之.<sup>117)</sup> 어떤 이는 이를 도망시켜 주기도 하고.  
 行有死人, 大路上에 시체가 있으면,  
 尚或瑾之.<sup>118)</sup> 어떤 이는 이를 묻어 주기도 하는 것을.  
 君子秉心, 그이의 마음바탕이,  
 維其忍之. 이렇게도 잔인하시다니.  
 心之憂矣, 마음속의 상심을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어서,  
 涕既隕之.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립니다.

제7장

君子信讒, 그이는 쉬이 험뜯는 말 믿으시기를,  
 如或酬之.<sup>119)</sup> 마치 그저 술만 권하면 받아 마시듯이 하신다네.  
 君子不惠, 그이께서 나에게 恩情이 없다가 보니,  
 不舒究之. 자세히 알아보고 살피지도 않으시네.  
 伐木掎矣, 나무를 벨 때는 긴 줄을 이용하여 牽引을 하고,  
 析薪地矣.<sup>120)</sup> 장작을 썰 때는 나뭇걸을 따라서 쪼개야하거늘.  
 舍彼有罪, 죄지은 자는 놓아두고,  
 予之佗矣.<sup>121)</sup>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있다니!

제8장

莫高匪山, 높지 않다고 산이 아니라거나,

用. 蓋翹足之貌, 疾奔之狀也.”

116) 屈萬里: “雉, 音購, 雉鳴也. 鹿奔求其群, 雉鳴求其雌, 喻人不可孤立也”

117) 屈萬里: “先, 義有開; 先之, 謂開放之也; 馬瑞辰說.”

118) 程俊英: “行, 道路. 瑾, 同殮, 埋葬”

119) 孔穎達: “交錯相酬, 名曰旅酬, 謂衆相酬也, 此喻得讒即受而行之”

120) 程俊英: “掎, 伐木時, 用繩拉樹以控制下倒方向. 析薪, 劈柴. 地, 順着木紋剖析”

121) 程俊英: “佗, 加.”

莫浚匪泉.<sup>122)</sup> 깊지 않다고 샘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君子無易由言, 임이어 가벼이 말씀하시지 말아요,  
 耳屬于垣, 귀는 저 벽에도 붙어 있다오.  
 無逝我梁, 누구든 나의 어살을 옮기지 말아요,  
 無發我笱, 누구든 나의 통발도 열어젖히지 말아요.  
 我躬不閱, 내 몸조차도 용납되지 못하는 세상,  
 惶恤我後, 어찌 한가하게 나의 뒷일을 생각할 수 있으리오.

1장에는 시적 화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후의 哀傷을 하소하고 있다. 즉 起首 2구를 보면, 시적 화자는 줄줄이 무리지어서 등지로 날아드는 “갈가마귀 떼들鸛”의 평화로운 표현성을 感知하자, 그녀의 뇌리에는 對比聯想이 야기되면서 “鸛”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3,4구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즐거운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데 유독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는 哀傷心理에 젖어들고 있다. (“民莫不穀, 我獨于罹”) 다음 구절로 내려오면 화자의 이러한 애상심리는 분노 쪽으로 선화하여 상벌의 주재자라고 여기는 “하느님天”에게까지 그녀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느님은 자기에겐 벌을 내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억울함을 드러냄으로써, 審美의 喪失感으로 정서적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何辜于天, 我罪伊何?”)

2장으로 와서는 흰하게 트여있던 大路에 잡초가 우거져서 행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蹊路周道, 鞠爲茂草”)을 목도하면서, 棄婦는 이러한 자연정경으로부터 遮斷의 표현성을 感知받으면서 그의 인생행로에 대한 불여의함이 이에 감응 되어 또 하나의 비애적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심미인식이 계속하여 棄婦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마치 공이 들고 심장을 쿵쿵 찡는 듯하네怒焉如壽”라든가, “웃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서 언제나 탄식만

122) 金啓華: “毛亨: ‘浚, 深也.’ 胡承珙: ‘此言無高而非山, 無浚而非泉, 山高泉深, 莫能窮測也. 以喻人心之險, 猶夫山川.’”

하고,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여 늙은이가 다 되었네.假寐永嘆, 維憂用老”라든가 “번뇌로 인해 머리가 터질듯 하네.痰如疾首”등의 표현은 모두가 극도의 정서불안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棄婦 內心의 갈등의 所在이다.

3장은 남편에게 疏薄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나 설상가상으로 부모님 조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고 더욱 절망하는 心境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起首 2구(“維桑與梓, 必恭敬止.”)를 보면, 棄婦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목도하면서, 그녀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부모님과 관련된 유쾌했던 미적체험이 喚起되면서, 눈앞의 二物(“桑·梓”)에 대해 審美注意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자 부모님에 대한 보다 생생한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심미기대의 추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感官은 이들 二物에 대한 知覺에 집중되어서 마침내 이를 부모님과 同一視하는 異質同構의 知覺完形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棄婦는 본 圖式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심미능력을 투입하여,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접근연상<sup>123)</sup>으로 진입하여, 그녀의 審美感受가 가일층 고조되자,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인해 그녀의 聯想의 확대는 兩親과 生·死를 달리하는 공간을 “이미 부친의 모발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모친의 피부와 연속되어 있지도 않다니.不屬於毛, 不罹于裏.”<sup>124)</sup>라는 심미인식의 단계에 이르면서, 그녀의 審美注意는 중단된 현실의식을 회복하게 되자 하느님을 향하여 “이왕 하느님께서 이네 몸을 낳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時運을 이리도 꼬이도록 하시는가?天之生我, 我辰安在?”라는 원망서린, 절규를 토해낸다. 그렇다면 本章의 이러한 현실인식이 다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123) 어떤 사물에 대한 感知와 기억은 그것이 있는 공간과 시간에 근접한 기타 다른 사물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를 접근연상이라고 함.

124) 屈萬里: “屬, 連屬也. 罹, 附也. 經義述聞云 ‘裏, 讀爲理. 謂腠理也. 毛在外, 理在內, 相對爲文.’ 言已與父母, 毛髮豈不相連屬乎? 意謂身體髮膚, 受之父母, 若相連屬附麗者; 何竟不爲父母所愛也.”

4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棄婦의 시선은 「무성한 버들 숲에서 끝없이 울어대는 매미의 울음소리(“菀彼柳斯, 鳴蜩嘒嘒.”)와 「깊고 깊은 호수주변으로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숲(“有漙者淵, 萑葦叢叢.”)을 목도하자, 그녀의 視聽覺은 이 경물들의 표현성, 즉 하향곡선을 그으며 휘늘어진 버드나무 숲의 피동적인 모습과 매미의 끊어질듯 이어지는 애잔한 울음소리 및 호수주변을 장승처럼 무리지어 서있는 갈대숲의 쓸쓸한 표정성 등으로부터 그녀는 갈 길을 잃어버린 本人內心の 절망감을 感知하자 異質同構의 心物感應을 일으키면서 悲感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의 눈앞으로 나타나는 어느 낯선 「片舟」의 舟行에서 또 하나의 자기와의 同一性(“譬彼舟流, 不知所屆.”)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悲感의 知覺整體는 더욱 깊은 哀傷속으로 빠져들고 있다.(“心之憂矣, 不遑假寐.”)

말하자면, 그녀의 이와 같은 審美圖式 속에는 과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서 오는 연연한 심미심리가 字間行間에 넘치도록 번져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5장은 그녀의 이러한 심미정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을까?

5장의 起首 4구(“鹿斯之奔, 維足伎伎 雉之朝雊 尚求其雌”)에서는 사슴과 장끼가 심미축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棄婦는 바로 이 序頭의 4구에서 感知한 情景를 통해, 이들 무리들이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四足を 곧추 세우고 날아가는 듯이 달려가는 적극적인 표현성(“鹿斯之奔 維足伎伎.”)과 아침마다 자기 짝을 召喚하느라고 끼우끼우 노래하는 장끼의 가정적인 단란한 표현성(“雉之朝雊 尚求其雌”) 등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내심의 심미적 욕구를 감응 받고, 異質同構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棄婦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면서 그녀의 審美注意는 중단된 현실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자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병든 나무壞木”로부터 재발견하면서, (“譬彼壞木, 疾用無枝.”) 四顧無親한 자신의 신세를 비감 하는 고뇌의 현실심리를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리오 寧莫之知”라고 토해내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悲感의 현실인식은 6장에 이르면 이를 세상의 인심과 對比하

면서 더욱 처참한 자신의 운명을 재인식하게 된다.

즉 棄婦는 6장의 起首 4구(“相彼投兎, 尚或先之. 行有死人, 尚或殫之”)에서 울가미에 갇힌 토끼(“投兎”)나 大路上에 나뒹구는 시체(“行有死人”)도 이를 목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해주거나 물어주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을 제시한 다음, 이어지는 하반부에서는 남편의 잔혹성을 이에 대비시켜 常情을 넘어서 그의 失道와 失德에 대한 비교심리를 “君子秉心, 維其忍之”라고 들어내면서, 뜨거운 傷心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다.(“涕既隕之”) 棄婦의 이러한 가슴을 파고드는 傷心은 7장에 이르면,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失德의 면면을 드러내어 아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존중의 심미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起首 4구(“君子信讒, 如或酬之. 君子不惠, 不舒究之.”)에서 “남편 君子”의 「缺德」행위를 지적하여, 棄婦의 處世에 대한 심미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의 宗法的 思考에 젖어있는 어느 부녀자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녀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中傷하는 타인의 “참언讒”에 대해서 마땅히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참언을 받아드리기를 마치 술을 권하면 권하는 족족 받아 마시듯이 그렇게 쉽게 믿어버린다 君子信讒, 如或酬之”라는 것에 대하여, 이는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애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君子不惠, 不舒究之.) 라는 현실적 이해를 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심미이해는 부부지간을 대등한 인격체로 놓고 볼 때 성립되는 판단으로서 棄婦의 부부관의 자각적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반부 내용을 보면, 棄婦의 判斷心理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말하자면, 나를 은애하건 하지 않건 이는 별개의 문제로서, 일은 일로써 처리해야한다는 일보 진입한 理性的 判斷心理를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테면, 나무를 벨 때나 장작을 쪼갤 때에 무작정 도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벨 때는 긴 줄을 이용하여 牽引을 하고, 장작을 쪼갤 때는 나뭇결을 따라서 쪼개어야 한다 伐木捨矣, 析薪拙矣.”는 이른바 해당 대상의 物性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處事를 해야 한

다는 비유적 說破를 통해, 事理에 어두운 남편의 처사를 질책함으로써, 사물을 다룸에 있어서도 物理와 事理를 쫓아서 다루거늘 하물며 부부지간으로 살고 있는 아내에게 이러한 無禮를 범하고 있음(“舍彼有罪, 予之佗矣.”)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章으로 오면, 棄婦의 이러한 自覺的 審美心理는 더욱 뚜렷해진다. 즉 起首 2구(“莫高匪山, 莫浚匪泉.”)에서 “山”과 “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높다는 것과 깊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판단일 뿐, 반드시 「높아야만 산」이고 「깊어야만 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제기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란 반드시 남자나 아니면 남편, 아니면 사대부 이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다시 이어지는 2구에서 귀는 벽에도 있으니, 근거 없는 말은 삼가 달라는(“君子無易由言, 耳屬於垣.”) 임숙한 요청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내로서의 주인의식을 내포한 “나의 어살도 옳기지를 말고, 나의 통발도 열지를 말아요 無逝我梁, 無發我筍.”라는 발언까지 하여, 審美主體로서의 심미요구를 피력해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結尾에서는 재차 자신이 「棄婦」의 입장임을 재인식하면서 “내 몸조차도 용납되지 못하는 세상, 어찌 한가하게 나의 뒷일을 생각할 수 있으리오 我躬不閱, 惶恤我後”라는 自嘲어린 獨白을 함으로써 소위 「男尊女卑」라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본 시가에서의 棄婦는 이와 같이 「夫婦觀」에 대하여 상당히 진보적인 심미인식을 하고 있으나, 결국 그것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만 그렇게 판단되는 것일 뿐 衆多數者의 사회인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주체가 남성에게 있었느니 만큼 이 棄婦의 이러한 자각적 인식은 오히려 宗法에 순종하며, 남편의 어떠한 방종도 수용하며, 오로지 「女必從夫」하기만을 염원하는 위의 <谷風>의 棄婦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절망을 體感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谷風>과 <小弁>에서 모두 동일하게 “毋逝我梁, 毋發我筍. 我躬不閱, 惶恤我後.”라는 대목을 棄婦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들 審美主體者들의 심미경계는 다르다고 본다. 즉

<谷風>의 棄婦의 內心에는 부부지간을 主從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만, <小弁>에서의 棄婦는 부부지간을 이미 대등한 인격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차이점 때문에, 前者는 단지 疏薄을 맞음으로 인해, 본인의 안식처를 상실했다는 데서 오는 절망감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後者의 棄婦는 오히려 이것은 물질적인 상실이고, 이보다 더 큰 상실은 부부지간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悲感이 더 크다는데 있다. 그래서 그녀에겐 깨어 있는 자의 고독과 소외감 및 분노가 뒤엉켜 있는 복잡한 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衛風의 <氓>에서 보여주는 棄婦의 태도는 어떠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위의 <谷風>과 자매편이라고 칭할 만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兩篇이 모두 여주인공이 시집가서 어려운 살림형편을 호전시킨 이후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者인 <谷風>은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면서 조강지처로서의 立地가 무너지는데 대한 부녀자의 찰나적 정감을 抒情的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데 반해, 後者인 <氓>은 敘事的 구성을 띠고 있어서, 시적 화자인 여주인공이 연애에서 결혼; 다시 결혼에서 버림받기까지의 全過程에 대한 부녀자의 心路歷程을 보여주고 있느니만큼 이들 兩者에서 보여주는 棄婦의 남편에 대한 심미의식의 동향이나 관점은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原詩를 보면:

1장

氓之蚩蚩,	敦厚해 보이는 모습의 사내가,
抱布貿絲 <sup>125)</sup> .	무명베를 안고 와서 명주실과 바꾸자고 하네요.
匪來貿絲,	사실은 실타래 사자한 것은 구실이고요,
來即我謀.	婚事관련 상의코자 찾아온 것이죠.
送子涉淇,	즐거움에 겨워서 그 사낼 淇水 강변까지 내려주느라고,
至于頓丘 <sup>126)</sup> .	頓丘 지역까지 갔었답니다.

125) 屈萬里: “氓, 野民也. 蚩蚩, 敦厚貌. 布, 卽布帛之布. 貿, 買也.”

126) 朱熹: “頓丘, 地名.” 王應麟: “《輿地廣記》, 頓丘, 本衛邑, 在淇水南.”

匪我愆期,      내가 공연히 날자를 연기코자 하는 게 아니라,  
 子無良媒.      그대가 좋은 媒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將<sup>127)</sup>子無怒,      부디 제게 화내지 말아요,  
 秋以爲期.      가을날을 婚期로 다시 정하지요.

## 2장

乘彼坵垣,      허물어진 저 담장 위에 올라가서,  
 以望復關<sup>128)</sup>.      아득하게 복관 쪽만 바라보았죠.  
 不見復關,      시야 안으로 복관의 그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泣涕漣漣.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既見復關,      복관의 그이가 오시는 날엔,  
 載笑載言.      웃으면서 이야기하였죠.  
 爾卜爾筮,      그 사람이 점을 쳐 보고,  
 體無咎言.<sup>129)</sup>      점괘가 나쁘다고 아니하였기에.  
 以爾車來,      수레를 타고 와서,  
 以我賄遷<sup>130)</sup>.      한수용품이랑 이 몸까지 함께 데려가라고 했었죠.

## 3장

桑之未落,      뽕잎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네요,  
 其葉沃若<sup>131)</sup>.      그 잎새 부드럽고 윤기까지 나는 걸요.  
 于嗟鳩兮,      아아 구구구 산비둘기야,  
 無食桑葚.<sup>132)</sup>      오디얼매 맛있다고 따 먹지 말아라.  
 于嗟女兮,      아아 춘정이 넘치는 처녀들이여,  
 無與士耽.      한량들 좋다고 미혹되지 말아라.  
 士之耽兮,      한량들이 아가씨랑 놀아나는 것이야,

127) 鄭玄: “將, 請也”

128) 屈萬里: “復關, 氓所居之處也. 此則指氓言. 《寰宇記》有復關城. 云 在檀州(今河北清豐縣)臨河縣. 漣漣, 淚下流貌.”

129) 毛亨: “龜曰卜, 蓍曰筮. 體, 兆卦之體.” 즉 “體”는 점친 괘의 형상을 말함 앞의 주석 38) 참조.

130) 屈萬里: “賄, 財也. 以其財物遷於夫家也. 此言既嫁.” 程俊英: “賄, 財物也, 指嫁妝.”

131) 王力 《古代漢語》(修訂本): “桑之未落 這句話表時間 表時間的分句裏 主謂之間加上介詞‘之’, 取消它的獨立性, 更顯示出它和主句的密切關係.” 제2권 p.478.

132) 위의 책: “鳩: 斑鳩. 兮, 語氣詞, 相當於現代漢語的‘啊’. 桑葚: 桑的果實. 據說斑鳩吃了桑葚能醉, 這句話比喻女子不要沈溺在愛情裏.” 제2권 p.478.

猶可說也.<sup>133)</sup> 언제이든 빠져나갈 틈이 있지만.  
 女之耽兮, 처녀들이 한량들과 놀아 나며는,  
 不可說也. 어떻게 가벼이 벗어날 수 있으리오.

4장

桑之落矣, 뽕잎이 분분이 지고 있네요,  
 其黃而隕. 누우렇게 빛이 바래지면서 지고 있네요.  
 自我徂爾, 내가 그 사람에게 시집온 이후로,  
 三歲食貧.<sup>134)</sup> 수년간 먹지도 입지도 못한 세월이었답니다.  
 淇水湯湯, 도도히 흘러가는 淇水 강물에,  
 漸車帷裳.<sup>135)</sup> 수레의 양쪽 휘장 젖어드는구나.  
 女也不爽, 나는야 아내노릇 못한 것 없건마는,  
 士貳其行.<sup>136)</sup> 당신의 그 행동은 정말 너무하네요.  
 士也罔極,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  
 二三其德. 마음 속엔 언제나 딴마음을 지니니.

5장

三歲爲婦, 수년간 아내노릇 하면서,  
 靡室勞矣. 집안일로 조금도 쉴 틈 없이 바빴네.  
 夙興夜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은 밤에서야 잠자리에 들어가니,  
 靡有朝矣. 내게는 여유 있는 아침저녁이 없었다네.  
 言既遂矣.<sup>137)</sup> 이제 집안형편이 안정되고 나니,  
 至于暴矣. 오히려 얼굴을 바꾸어서 사나워지기 시작하였네.  
 兄弟不知, 형제들은 나의 이런 처지도 모르면서,  
 咥其笑矣.<sup>138)</sup> 돌아온 나를 보곤 오히려 비웃기만 하고 있네.  
 靜言思之,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躬自悼矣. 나 혼자 가슴만 쓰라려 오네.

133) 程俊英: “說, 音義同脫, 擺脫或解脫的意思(用林義光《詩經通解》說)”

134) 屈萬里: “徂, 往也. 徂爾, 謂來嫁也. 食貧, 猶今語‘過窮日子.’”

135) 程俊英: “湯湯, 水盛大樣子. 漸, 霑濕. 帷裳, 車箱兩旁的圍布, 形狀像現在車兩旁的簾子.”

136) 屈萬里: “爽, 差錯也. 貳, 猶言兩樣; 貳其行, 謂其行為改變不同於初時也.”

137) 程俊英: “言既遂矣: 言, 助詞. 既, 已經. 遂, 安, 指, 生活安定.”

138) 朱熹: “咥, 笑貌”

## 6장

及爾偕老, 당신과 함께 백년해로 하렸더니,  
 老使我怨. 늙으막에 와서 오히려 원수가 될 줄이야.  
 淇則有岸, 淇水가 넓다고 하나 강둑이 있고,  
 濕則有泮. 低濕地가 넓다고 하나 기슭이 있거늘.  
 總角之宴, 우리 둘 결혼 전엔 정말 서로 좋았는데,  
 言笑晏晏.<sup>139)</sup> 웃고 얘기하고 얼마나 다정했는데,  
 信誓旦旦.<sup>140)</sup> 진실로 굳었던 그대 맹서 아직 귓전에 쟁쟁한데,  
 不思其反. 어찌 예측했으리오 그대의 마음이 변할 줄을.  
 反是不思, 맹서를 뒤집을 줄 누가 알았으리오,  
 亦已焉哉!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1장은 시적 화자가 이후에 남편이 될 “사내氓”<sup>141)</sup>와 자유연애를 하여 혼약하게 되는 과정을 읊은 것이다.

본 시가의 시작은 이미 화자가 “사내”와 審美關係가 형성된 이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起首의 2구(“氓之蚩蚩 抱布貿絲”)에서 출현하고 있는 “사내氓”은 이미 화자의 내심에 그의 “敦厚해 보이는 인상蚩蚩”이 表象化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당시에 “사내氓”은 “무명베를 안고 화자에게 찾아와서 명주실과 바꾸겠다抱布貿絲”는 구실로 婚事이야기를 꺼내었고, 화자는 이에 卽答을 피했던 사실을 棄婦가 된 지금 슬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화자는 사내를 “淇水”부근까지 전송하면서 혼기를 늦추게 된 원인이 부모님에게 있음을 밝혀(“내가 혼기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매자를 통해 청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匪我愆期, 子無良媒”) 사내의 마음을 다독여줌과 동시에 가을을 婚期로 약정을 했던 것

139) 屈萬里: “總角, 卽結髮. 謂直結其髮聚之以爲兩角(兩個辮子)也; 男未冠女未笄時, 其髮如此. 宴, 樂也. 晏晏, 和柔貌.”

140) 朱熹: “旦旦, 明也”

141) 糜文開·裴普賢 著《詩經欣賞與研究》(臺灣: 三民書局, 中華民國 76年): “牛運震云: ‘稱之曰氓, 鄙之也; 曰子, 曰爾, 親之也; 曰復關, 諱之也; 曰士, 欲深斥之而謬爲貴之也. 稱謂變換, 俱有用意處.’” 1권 p.305

(“將子無怒，秋以爲期”)<sup>142)</sup>을 회상함으로써, 당시의 감미로웠던 審美心境을 반추하고 있는 것이다.

2장으로 오면, 혼약에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고 있다. 화자는 남자와 헤어진 이후, 매일같이 다시 그와의 재회를 학수고대하는 과정에서 남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行爲로써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그 날 헤어진 이후로 매일같이 허물어진 담장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復關<sup>143)</sup>”을 기다림(“乘彼坳垣，以望復關”); 오는 모습이 화자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림(“不見復關，泣涕漣漣”); “그 사람”을 만난 날은 희열에 들떠서 정신없이 웃어대거나 지껄임(“既見復關，載笑載言”); “그 사람爾”<sup>144)</sup>이 婚事를 위해 “卜·筮”를 친 것과, 게다가 卜·筮에서 모두 길하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는, 즉시 쾌히 “그 사람”에게 수레를 타고 와서 자기 자신과 준비해 둔 혼수품을 모두 실어가도록 요청함(“以爾車來，以我賄遷”) 등의 심미태도는 당시에 화자가 이 결혼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미 1장에서 남자가 媒子도 없이 청혼하여 話者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화자의 적극적인 해명과 주선으로 청혼은 成事되었을 뿐 아니라, 2장에서 여자의 남자에 대한 심미실천의 확대에 의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두 사람의 자유연애가 결혼으로써 公認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남자에 대한 審美實踐을 통해, 우리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衷情心の 발현을 뚜렷하게 感知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어지는 3,4,5장에서는 이미 美色이 사라지면서 남편으로부터

142) 周代의 혼인은 부모의 命과 媒子의 중매로 이루어지며, 婚期는 주로 春秋 兩季 중에서 선택을 함. 그러나 본 시가 중의 주인공들은 자유연애를 한 탓으로 男方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결혼할 것을 女方에 요구하자 이를 女方측의 부모님이 거절하면서 중매자를 통해 정식으로 청혼해 올 것을 요구함. “將子無怒”라는 말이 바로 女方측에서 혼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양해를 男方에게 요구하는 말임.(위의 책 p.305 참조)

143) 주석 128) 참조.

144) 주석 141) 참조.

외면당하는 현실의 哀傷을 하소하고 있다.<sup>145)</sup> 먼저 3장을 보면, 시적 화자는 起首 2구(“桑之未落, 其葉沃若”)에서, 뽕나무 잎의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표현성에서 남편의 화자에 대한 審美情意를 회상하게 되자, 내심의 피해의식이 이에 감응되어 분노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녀의 審美理解는 환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뽕나무 열매(桑葚)를 탐닉하는 “산비둘기鳩”와 “한량士”에게 탐닉하는 “치녀女”를 “사내氓”에게 탐닉했던 화자와 同一視를 획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디가 맛있다고 따 먹지 말아라; 한량들 좋다고 미혹되지 말아라 無食桑葚, 無與士耽”<sup>146)</sup>는 경고성 발언을 던지고 있다. 화자는 남자로 인해 겪게 되는 哀傷이 他物과 他人에게서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심미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지는 結尾 4구에서 화자는 警告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즉 치녀가 남자에게 미혹되면 그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없으나, 남자들이야 입장이 다르다(“士之耽兮, 猶可說也. 女之耽兮, 不可說也.”)는 내용인데, 이는 곧 당시의 시대적 구조가 男尊女卑라는 기준하에 모든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어디서나 주인으로서 군림하면서, 여성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행위를 범하여도 정당화 될 수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三從之義」라든가 「七去之惡」이라는 굴레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行動舉止는 언제나 適格의 원리에 부합되어야만 했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대중의 인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棄婦의 신세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路程에서의 심미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起首 2구(“桑之落矣, 其黃而隕”)를 보면,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桑樹를 審美의 축매로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145) 본 시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사적 구조를 띠면서도 3,4,5 장에서는 화자 자신이 現身하여 서정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6 장에서는 다시 議論性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가의 구조가 결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회상과 현실을 상호교차시켜 화자의 審美心理의 정·반면의 起伏을 잘 드러나게 하고 있다.

146) 毛亨: “鳩, 鶉鳩也. 食桑葚過則醉, 而傷其性”

疏薄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바로 桑樹로부터 落下하는 황엽의 초취한 표현성(“其黃而隕.”)으로 부터, 남자의 화자에 대한 情意의 퇴색을 感知하면서 「黃葉의 圖式」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녀는 곧 너리에, 시집은 이후의 곤궁했던 세월을 회상하면서(“自我徂爾, 三歲食貧.”), 淇水 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때 화자는 淇水 강물에 젖어드는 수레양쪽의 휘장이 축축해지는 표현성으로부터(“漸車帷裳”), 고생만하고 버림받게 된 억울한 신세가 다시금 感知되면서 또 하나의 知覺整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자 “그 잘난 어르신士”에 대한 심미인식을 완전 배척하는 “나는야 아내노릇 못한 것 없건마는, 당신의 그 행동은 정말 너무하네요 女也不爽 士貳其行.”라는 질타를 날림으로써, 棄婦의 夫婦觀을 암시해주고 있다. 아무리 당시 사회구조가 男權中心으로 흐르고 있다 해도, 棄婦의 내심에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結尾에서 다시 한 번 남자의 아내에 대한 失道와 失德을 제기하는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 마음속엔 언제나 탄마음을 지니니. 士也罔極 二三其德.”라는 발언으로 남편에 대한 심미평가가 主從 관계에서 평등관계로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

이어지는 5장은 여전히 「黃葉圖式」에 대한 感知의 파장이 몰고 온 심미반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결혼이후의 괴로운 시집살이의 면면에 대한 감정의 기복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즉 起首 4구는 결혼이후 수년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해, 아침과 저녁조차 제대로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三歲爲婦, 靡室勞矣 夙興夜寐, 靡有朝矣”); 그러나 이어지는 5,6구(“言既遂矣, 至于暴矣”)에서는 가정형편을 안정케도로 끌어 올린 것과 남편의 變心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結句 4구에 오면, 棄婦의 친정형제들은 그녀의 이러한 속 내막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박대하여, 天地間에 어디에도 歸宿할 수 없는 절망감을 “兄弟不知, 咥其笑矣. 靜言思之, 躬自悼矣.”라고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末章에서도 棄婦는 黃葉의 知覺整體에 대한 반복적인 感知로 인해, 남편과 함께 쌓아올렸던 수많은 哀歡의 情意를 끊임없이 반추함으로써 남편과의 「百年偕老」에 대한 심미욕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棄婦는 그의 시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淇水”의 “강기슭岸”과 “濕地”의 “둔덕泮”간의 상관관계가 전해주는 표현성, 즉 “淇水”가 자신의 무제한 확장을 自制하는 “강기슭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濕地” 역시 자신의 무제한 확대를 자제하는 “둔덕泮”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들 兩者의 物理的 現象(“淇則有岸, 濕則有泮.”)이 드러내고 있는 自制的 표현성으로부터, 자기 통제력을 잃고 糟糠之妻를 집밖으로 내친 남편의 惡德이 대비적으로 聯想되는 심미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남자에게는 그의 魔性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으로는 도덕성이 부재하고 밖으로는 모든 사회법이 남자 중심이다. 그러기에 婚前의 다정했던 심미관계(“總角之宴, 言笑晏晏”)와 棄婦에게 들려주었던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굳은 맹서(“信誓旦旦”)는 위의 표현성과 대비되면서 棄婦의 內心을 더욱 아프게 한다. 이 사회가 남자의 무분별한 野性的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棄婦는 결코 자기의 위치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亦已焉哉!”라는 한마디로 남편을 향했던 심미욕구를 수렴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氓>의 棄婦 역시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자유연애의 주체자였지만 결국 「男尊女卑」라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어찌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비록 제3의 자기와 같은 비운의 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상의 여성들을 향해 “士之耽兮, 猶可說也. 女之耽兮, 不可說也.”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고, 또는 “나는야 아내노릇 못한 것 없건마는, 당신의 그 행동은 정말 너무하네요. 女也不爽, 士貳其行”라는 주종관계를 탈피하는 질타성을 띤 內心을 털어놓아보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하겠는가! 亦已焉哉!”라는 체념을 보임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심미기대를 확대시키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그녀의 남편에 대한 심미관 속에는 강열하게 남편과의 평등적 심미관계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도, 현실이 그녀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녀의 심미욕구도 收斂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3편에서 보여 지는 棄婦의 남편에 대한 심미욕구는 개인적 자아의식이요,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개인행복의 포기는 公的인 社會善이라는 宗法的 영향을 간과할 있겠다. 당시 사회가 변혁의 격동 속에 있었다고는 하나 부녀자들의 인생에 瑞光을 주기에는 부족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III. 결 론

《詩經》의 情歌 속에 나타난 중국고대부녀자들의 남편에 대한 각종 審美樣相을 살펴본 결과 그 유형별로 혹은 크게 혹은 작게 그들의 審美意識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적 면모들이 드러났다.

첫 번째로 「賢婦類型」에서는 公事의 주체자는 남편이고 그 남편을 내조하는 자는 아내이지만, 실제상에서는 마치 公事의 주체자인 남편을 통해,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부녀자의 「社會美」와 「家庭美」를 모두 드러냄으로써 自我意識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征婦類型」에서는 모두 남편이 출전할 당시에는 남편의 公義의 실현에 대하여 자부심을 드러내 보이다가 別離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는 征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觀點이 반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征婦의 審美觀 속엔 「公義」라는 社會善은 하나의 허구이나, 가족을 위한 배려와 노력 즉 남편과 시부모 등을 향한 恩愛의 표현에서는 征婦自身の 幸福과 同一視하는 審美意識의 실재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思婦類型」에서는 모두 公事로 출타 중인 남편으로 인해, 空閨를 지키는 思婦의 남편에 대한 審美動向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테면, 부부의 본질 혹은 존재의미는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탄생된다는 것과 남편

에게 公益善의 실현보다는 家族愛를; 公義의 실천보다는 개인의 생명가치를 우선시 할 것을 염원한다는 것; 思婦의 자신을 위한 개인중심보다는 남편중심의 심미배려 등에서, 우리는 男權과 집단 의식이 우선적으로 수호되었던 當時 사회적 배경하에서 부녀자들의 이와 같은 심미의식은 다분히 先進的인 美意識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 된다.

네 번째로 「怨婦類型」에서는 남편으로부터 恩愛의 정감을 상실하고서도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理性心理」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亡夫를 향하여 生死間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할 것을 기원하여 남편을 향한 불멸의 審美情感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宗法의 존재는 본래 기득권자의 자기수호를 위한 정치성을 띤 하나의 제도였지만, 당시의 부녀자들은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요구하는 이 沒人情한 형틀을 오히려 운명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희생의 심미의식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향한 「怨」의 정감조차도 이렇게 다시 「和諧」를 전제로 하는 여지를 뒹으로써, 儒家的 婦德性을 띄운 심미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棄婦類型」에서는 棄婦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편에 대하여 유가적 은유돈후함으로써 남편과 主從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미태도를 보이는 것과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棄婦가 되면서 남편의 失道와 失德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주종관계의 부부형식을 인격적 관계로 요구하는 발전적 면모의 審美態度를 보이는 反面性도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 결국에는 다시 이를 내면으로 收斂하는 審美意識의 좌절을 보임으로써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심미의식에 그 어떤 변동성도 없다고 봐야할 옳을 수도 있겠다.

요컨대, 위의 각종 유형에서 드러난 시경시대 부녀자들의 심미태도에서 개인성과 공통성의 混在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모두 개인행복과 개인생명 및 개인인격에 대한 자각성으로 인해, 사회를 향해 대립과 갈등을 한껏 드러내 보이다가도 결국은 여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女必從夫”라는 종법제도의 올가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법제도가 그들 개인 인격에게는 가혹한 제도였으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감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여성들에게 「儒家的 溫柔敦厚」함이라는 「怨而不怒」의 中和의 심미태도를 발산케 하여 남편을 내조하는 有德한 여성을 탄생시킴으로써, 국가경영의 초석을 마련해주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 < 參考文獻 >

- 《十三經注疏·毛詩正義》 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중국: 浙江古籍出版社, 1998년)
- 《十三經注疏·儀禮·喪服》(중국: 浙江古籍出版社, 1998년)
- 金啓華 《詩經全譯》(중국: 江蘇古籍出版社, 1996년)
- 程俊英 《詩經譯注》(중국: 上海古籍出版社, 2000년)
- 王力 《古代漢語》(修訂本) 제2권
- 段楚英 《詩經中的情歌》(중국: 武漢出版社, 1994년)
- 宋·朱熹 《詩集傳》(대만: 中華書局, 1982년)
- 屈萬里 《詩經詮釋》(대만: 聯經出版社, 民國 70년)
- 王靜芝 《詩經通釋》(대만: 大江印刷廠, 民國 66년)
- 滕志賢 《詩經讀本》(대만: 三民書局, 民國 90년)
- 裴普賢 《詩經評註讀本》上(대만: 三民書局, 民國 77년)
- 糜文開·裴普賢 著 《詩經欣賞與研究》(대만: 三民書局, 民國 76년)
- 晉·陸機 <爲顧彥先贈婦>詩之二(南朝·徐陵 編 《玉台新詠》)(중국: 華夏出版社, 1999년)
- 清·吳偉業 <圓圓曲>(李春祥 主編 《樂府詩鑑賞辭典》)(중국: 中州古籍出版社, 1999년)

版社, 1889년)

翦伯贊 《先秦史》(中國: 北京大出版社, 1999년)

蔣南華의 2인 注譯 《荀子全譯》(중국: 貴州人民出版社, 1995년)

宋·朱熹 《四書章句集注·論語集注·爲政》(대만: 學海出版社, 民國 68년 4판)

元·孔廣森 《大戴禮記補注·本命》(대만: 商務印書館, 民國54년 초판)

李戎 《美學概論》(중국: 齊魯書社出版, 1999년 )

冷成金 《中國文學的歷史與審美》(중국: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년)

日本·今道友信 《關於美》(중국: 黑龍江人民出版社, 1983년)

漢·劉向 《列女傳·魯之母師傳》(대만: 廣文書局, 民國 61년)

### <中文提要>

從對在《詩經》情歌上所表現的中國古代婦女對丈夫的各種審美型態之特徵當中, 探討出來的結論是如下五種

第一, 在「賢婦類型」當中, 住持公事的是丈夫, 幫助他的是妻子, 其真正內蘊就是在婦女之潛在意識裏所存在的婦女之「社會美」和「家庭美」之外化。

第二, 在「征婦類型」中, 當她丈夫出戰之時, 婦女們全都顯出對丈夫實現公義之驕傲, 但是與丈夫別離之時間越來越長, 或該回家的日子, 不能回來的時候, 就使她們所持的這樣的審美觀點變成「公私衝突」之葛藤局面。我們由此可知在征婦之審美觀裏, 以「公義」爲中心的「社會善」就是一個虛構, 只有對家庭的關懷和持家的勤奮表現出, 對丈夫的恩愛和對公婆的孝順。這就是征婦之真正的幸福, 又是她的審美意識之實在性。

第三, 在「思婦類型」當中, 丈夫爲了公事出差, 因此獨守空房之「思婦」對丈夫思念之審美意識, 才顯出其內在意義, 例如, 夫婦關係的本質, 或夫婦兩人之存在價值等等。換而言之, 丈夫不在她們身邊的時候, 才表現出希望跟丈夫實現公益善, 更高一層實現家族愛; 希望跟丈夫履行公義, 先要重視個人生命之

價值；思婦之自我，以丈夫爲主之審美關懷 等等 當時以保護男權和集團意識爲先的社會，婦女們這樣之審美意識，頗顯出先進性

第四，在「怨婦類型」當中，雖然喪失妻子之地位，但仍然不能忘記丈夫，並懇祈回復他本身的理性，使其終有一天回到她身邊；另外又夫無論生死，皆願意與他在一起，因此表現出對丈夫之專一之審美情感 再而言之，宗法家族制度原是有利於占有權益者之制度，但是當時婦女們却把這一個跟她們只要求義務和責任之沒有人情之牢獄當做她們終生住處，因而心甘情願給社會大眾顯現出一個犧牲自我之審美意識，所以連對丈夫的「怨恨」情感都埋在她們心裏，只留下着以「和諧」之境界餘步，因而給我們顯示出一個帶着儒家特性的婦德之審美態度。

第五，在「棄婦類型」當中，雖然被丈夫拋棄，但是仍然，以儒家的溫柔敦厚之審美態度，與丈夫保持主從關係，有的棄婦却把丈夫之失道及失德之不妥當性指出來，因此把一個主從關係之夫婦形式，以人格平等關係來要求。但是最終把它重新轉到主從關係之立場上。因此把時代性顯示出來 所以我們可知本質上她們的審美意識沒有任何變化。

總而言之，從上述各種類型當中顯示出來的詩經時代婦女之審美態度裏，可以看到一個個人性和共通性混在一起的事實。即她們都有着對個人幸福，個人生命和個人人格之自覺性，但又向着社會，把對立性及葛藤之性，盡力表現出來，最終在一個“女必從夫”之宗法制度之索罔上，顯現出一個屈膝之時代性 這一個宗法制度雖然在她們個人立場上，是一個嚴酷之制度，但在國家的統治立場上是有所肯定的。由於統治者要求婦女應有儒家的「溫柔敦厚 及 怨而不怒」之「中和性」的審美態度，所以在她們的思想上也不知不覺表現出來，因而使她們產生出來一個爲了丈夫 家族及家庭，心甘情願犧牲自己之婦德精神 而筆者認爲這種婦德精神爲中國以後的發展起了奠基作用。

주제어：賢婦類型，征婦類型，思婦類型，怨婦類型，棄婦類型，個人性，共通性，溫柔敦厚，中和性